***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19일 화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19호

부시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선언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18일,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의 이름으로 ≪한반도에서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더 이상의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엄숙히 선언하며, 미국의 부시대통령, 남북의 정치지도자와 7천만 겨레, 나아가 세계평화를 갈망하는 전 인류에게 다음과 같이 간절히 호소한다.

1. 미국은 기어코 한반도에서마저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가?

부시대통령은 방한을 앞에 두고 행한 2002년 연두 국정연설에서 이란, 이라크와 함께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우리를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위험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부시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북에 대한 군사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우리는 미국이 대 테러전쟁을 한반도로 확대할 어떠한 명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하면서 부시정부가 대한반도정책을 평화 지향의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 미국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갈 초강경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북과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진지한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50여년 전 한국전쟁의 처절한 비극을 몸소 겪은 바 있고,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화를 목도한 바 있는 우리 겨레는 남이냐 북이냐를 떠나서 그 어느 누구도 겨레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전쟁을 결코 원치 않는다.

이에 우리는 부시대통령과 미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초강경 대북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클린턴 행정부 시대에 체결된 탈냉전-평화 지향의 ≪북미기본합의서≫와 ≪10 · 12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가 이북과의 진지한 대화를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미국은 ≪6 · 15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과 북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

21세기 한반도는 지난 20세기 강대국에 의해서 강요된 분단의 사슬을 끊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2000년 6월 15일 분단 55년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6 · 15공동선언≫을 계기로 남과 북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칠 것을 온 겨레와 세계만방에 엄숙히 선언한 바 있다.

부시대통령과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과 북의 자주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협력하는 것이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는 나라로서 역사적 · 도덕적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김대중 정부는 전쟁반대에 대한 우리 겨레의 확고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하며, 남과 북의 정부당국자는 전쟁방지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보다 과감하게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모든 여야 정치지도자에게 정파적 이해와 정견을 넘어 온 겨레의 힘과 지혜와 의지를 모아내고,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키는 데 지도적 역할과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쟁반대, 평화정착!≫, ≪6 · 15공동선언 조속 이행, 평화통일 성취!≫의 기치 아래 7천만 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갈 것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인과 연대하여 강력한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온 겨레와 세계인류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2002년 2월 18일

부시방한 반대

1 부시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선언

노작

2 민족통일전선문제에 대하여 (1)

세기와 더불어

4 2장 5절 독립군의 녀걸 리관린

칭송

6 2월의 봄
6 **김정일**장군님의 정치실력을 높이 칭송

한국민족민주전선

7 반이회창투쟁과 국민의 자세
7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2월 17일

조국통일3대헌장

16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7.4남북공동성명(2)

조선중앙통신

8 주체 91, 2월 17일
9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강성대국 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2)

아리랑뉴스

10 부시방한 D-1, 평화선언 · 시국농성 이어져
10 민주노동당 소속 예비역 군인들 기자회견
10 10개사회단체 부시방한반대 농성돌입
11 ≪남북의 6 · 15 공동선언 이행에 간섭말라≫
11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선언
12 광주.전남 교수 200여명 부시 방한 관련 시국선언
12 ≪한총련≫ 미 상공회의소 사무실 기습농성
13 부시는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악의 화신≫
13 미일 정상회담, 일본경제 테러전쟁 등 논의
14 부시의 대화 제스처에 속지 말라 (1)
14 새해맞이 행사 26-28일로 확정

운동강좌

15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2)

민족통일전선문제에 대하여 (1)

민주청년단체가 주최한 정치강좌에서 한 강의 / 1945년 12월 22일

나는 오늘 동무들에게 우리 나라 혁명에서 민족통일전선이 왜 필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결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 역량관계를 옳게 타산하여 혁명역량을 잘 편성하여야 합니다.

통일전선문제는 대중을 전취하며 혁명역량의 결정적 우세를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전략전술문제의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민족통일전선을 굳게 형성하는 것은 매우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통일전선을 튼튼히 형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혁명역량을 굳게 묶어 세우는가 못 세우는가,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는가 못 시키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우리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부터 민족통일전선문제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복잡한 국내외정세에서 우리가 전체 인민의 힘을 적극 조직 동원하여 새 민주조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면 민족통일전선문제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젊은 건국일꾼들인 우리 청년들이 이에 대하여 똑똑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

우리는 모든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는 데서 그러한 바와 같이 민족통일전선문제를 논의하는 데서도 먼저 우리 사회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나라에서 민족통일전선의 필요성과 그 의의를 똑똑히 알 수 있으며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민족통일전선을 옳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조선사회는 어떠한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는 일본제국주의 식민지통치에서 갓 벗어난 반봉건사회, 다시 말하여 아직 일제잔재와 봉건잔재가 많은 사회입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거의 반세기동안이나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나라에서 악독한 식민지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잔인 무도한 총독정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을 야만적 방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가는 곳마다에 군대, 헌병, 경찰을 비롯한 온갖 폭압기구들을 수많이 늘어놓고 조선인민의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마저 모조리 빼앗았으며 우리 인민을 가혹하게 탄압 학살하였습니다. 실로 일제는 전 조선을 무시무시한 파쇼적 폭압과 공포정치로 뒤덮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모든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우리의 귀중한 자원을 마음대로 약탈하였으며 조선을 일본의 원료공급지로, 상품판매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민족경제발전을 극도로 억제하였으며 우리 인민을 가혹하게 착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를 매우 뒤떨어진 상태에 놓이게 하였으며 우리 인민을 기아와 빈궁 속에서 헤매이게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을 자기들의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야망 밑에 우리 인민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악독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없애려 하였으며 조선인민에게 노예교육을 강요하고 노예적 굴종사상을 주입시키려고 미쳐 날뛰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악독한 식민지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심히 억제하였습니다. 일제가 조선에서 발전시킨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자기들의 식민지적 통치와 약탈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것 뿐 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 봉건적 생산관계가 있고 조선이 반봉건사회로 남아있는 것은 바로 일본제국주의 자체의 성격 그리고 그 약탈적 본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는 그 자체가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가 아니고 봉건잔재를 많이 가진 자본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조선에서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의식적으로 봉건세력과 결탁하고 봉건적 관계를 보존하였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지주는 예속자본가와 함께 일제식민지통치의 중요한 사회적 지반이였습니다. 일제는 중세기적인 봉건제도의 잔재를 보존하고 그것을 식민지적 통치와 착취를 강화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지금 우리 나라에는 일제잔재와 봉건잔재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와 우리 인민의 사상도덕생활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통치의 잔재가 뿌리깊이 박혀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봉건제도의 잔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부식된 친일세력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으며 봉건세력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일제잔재와 봉건잔재는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사회의 성격을 분석하는데서 반드시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는 우리 나라의 절반 땅인 남조선에 미제국주의 군대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제국주의 군대는 남조선에서 군정을 실시하면서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진출을 방해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원수인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분자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혁명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 조선혁명은 일제잔재와 봉건잔재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단계, 다시 말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단계에 놓여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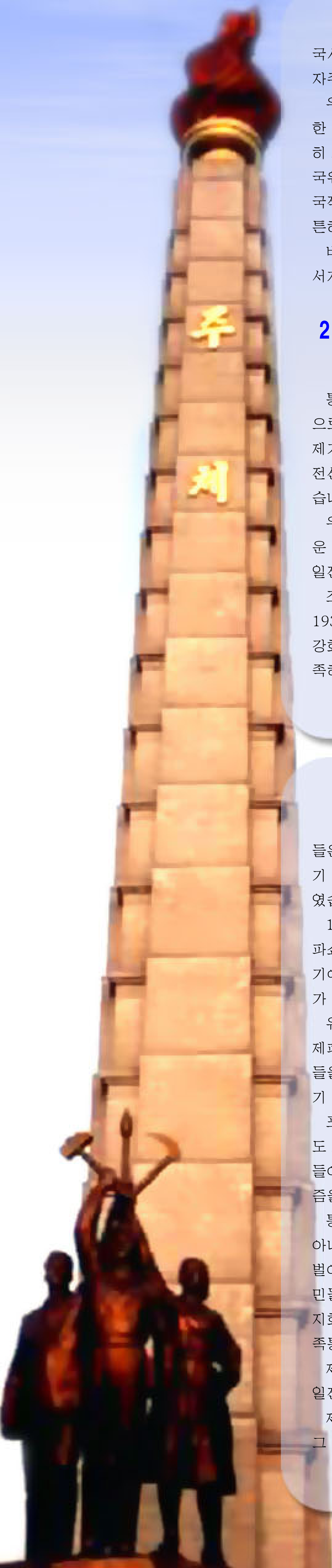
조선혁명의 당면한 투쟁대상은 제국주의 세력을 다시 부식하려는 일본제국주의 잔재세력을 비롯한 제국주의 앞잡이들과 그와 결탁한 봉건세력입니다.

이 두 세력은 목적과 이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지지 옹호하고 있으며 밀접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 잔재세력을 비롯한 제국주의 앞잡이들과 봉건세력은 다같이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조선을 반민주주의의 길로 끌어가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역량을 반대하고 낡고 썩은 반동세력을 긁어모아 우리 나라에서 내란을 일으키려 하며 외래침략세력과 결탁하여 또다시 우리 인민을 제국주의의 식민지노예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반동세력을 쓸어버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건

우리는 1936년 5월에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으로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 계기로 되었습니다.



국사업을 잘해 나갈 수 없으며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제국주의 잔재세력을 비롯한 제국주의 앞잡이들과 봉건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와의 투쟁을 강화하며 건국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전취하여 혁명역량을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민족통일전선문제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2. 통일전선운동의 역사적 경험

통일전선문제는 결코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 전에 제기되였으며 이미 국내 국제적으로 통일전선운동에서는 적지 않은 경험이 쌓아졌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30년대 초부터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힘차게 벌어졌습니다.

조선을 강점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륙침략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을 더욱 가혹하게 탄압하였으며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 폭압과 식민지적 약탈을 강화하기에 미쳐 날뛰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을 격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 속에서 반일투쟁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 세우며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요구로부터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1930년대 초에 무장대오를 조직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면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그리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을 항일의 기치 밑에 묶어 세웠으며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적극 조직 동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1936년 5월에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으로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 계기로 되었습니다.

조국광복회에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지식인, 중소상공업자, 종교인, 민족주의자 할 것 없이 조국광복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의 수많은 반일군중이 망라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국광복회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을 묶어 세움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꾸리고 무장투쟁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의 전반적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중국인민들과의 통일전선도 실현하였습니다.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던 중국인반일부대들과도 반일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조중인민의 공동의 원수인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진행한 이러한 통일전선운동을 통하여 우리는 고귀한 경험들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들은 새 조국을 건설하는 오늘 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통일전선운동은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유럽인민들은 파시즘의 검은 세력이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하던 때로부터 통일전선운동을 벌였습니다.

1933~1935년에 걸쳐 독일에서 히틀러파쑈도당이 머리를 쳐들었으며 또한 이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의 파쑈독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 인민들은 전 세계를 제패하며 인류를 노예화하려는 파시스트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통일전선을 결성하였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물론, 독일에서도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들과 단체들이 통일전선에 의거하여 나치스의 파시즘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통일전선운동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뿐아니라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식민지화정책이 더욱 강화되는데 대처하여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였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기 위한 민족통일전선에는 전 민족이 망라되게 됩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그 나라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만 억압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제국주의앞잡이들을 내놓고는 민족자본가들에 이르기까지의 전 민족의 이익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이 참가합니다. 물론 노동자, 농민들이 반제투쟁에서 기본역량이며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다른 어느 계급보다도 견결히 투쟁합니다. 그러나 이 투쟁에는 노동자, 농민들 뿐 아니라 전 민족이 참가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경험이 잘 말하여주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실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중국을 침략하였을 때 중국인민들은 전 민족이 연합하여 나라의 식민지화를 반대하여 투쟁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가 중국 동북지방을 강점하고 중국대륙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게 되자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에 당장 내전을 중지하고 통일전선을 결성하여 항일구국투쟁을 벌일 것을 제의하면서 인민들에게 언론, 결사의 자유와 무기를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완고한 국민당반동파들은 오랫동안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저항주의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의 호소에 따라 광범한 중국인민들이 전 민족이 단합하여 항일구국투쟁을 벌일 것을 요구하게 되자 국민당반동파들은 공산당의 제의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공산당과 국민당의 합작이 이루어지고 항일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통일전선운동은 1935년에 진행된 국제공산당 제7차대회의 호소에 의하여 더욱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국제공산당 제7차 대회에서 지미뜨로브동지는 파시즘의 위험이 커감에 따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민들에게 파시스트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강화할 것을 호소하면서 반 파쇼인민전선을 결성할 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반 파쇼인민전선운동이 국제적 규모에서 널리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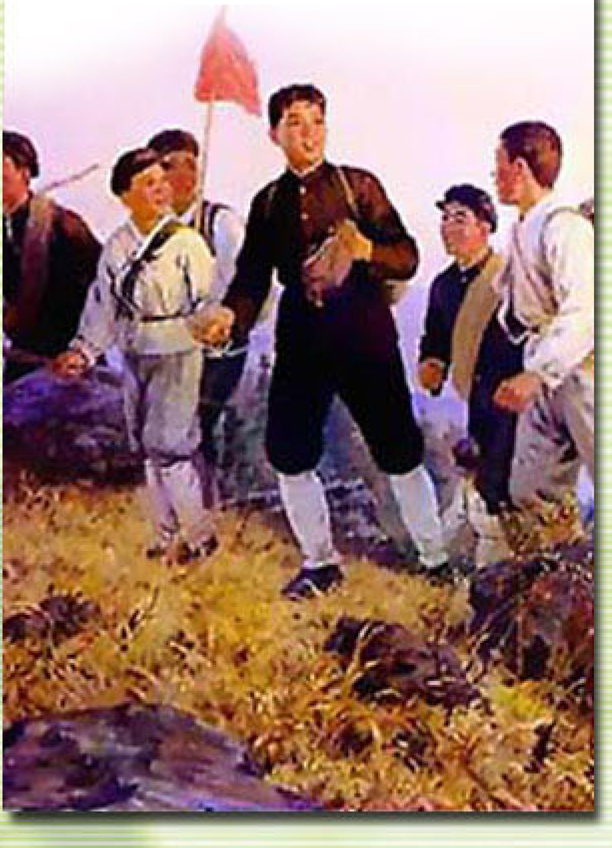
이와 같이 통일전선운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 국제적으로 적지 않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내일 계속됩니다)

1권 제2장

잊을수 없는 화전

1. 화성의숙
2. 환멸
3. 타도제국주의동맹
4. 새로운 활무대를 그리는 마음
5. 독립군의 녀걸 리관린



5. 독립군의 녀걸 리관린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무송에 돌아와보니 이전처럼 집으로 찾아오는 독립운동자들이 많지 않았다. 밤낮으로 인적이 그치지 않던 지난날의 집안풍경에 대비하면 너무나도 적막하고 쓸쓸하였다.

내가 무송에서 받은 인상들가운데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리관린의 모습이였다. 리관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오동진이 그를 우리 집에 보내면서 관린은 김선생덕을 많이 입었는데 그 연고를 생각해서라도 무송에 가서 성주 어머니를 잘 도와드리라고 당부하였다는 것이다. 리관린은 남만녀자교육련합회 사업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동무해주고 있었다. 원래 리관린은 성격이 담차면서도 락천적인 녀자였다. 문무를 겸비한 녀자로서 리관린만큼 인물이 잘나고 기상이 도도하고 대담무쌍한 녀걸은 당시 조선에 없었을 것이다. 봉건이 심해서 녀자들이 바깥출입을 해도 얼굴마저 가리우고 다니던 그때 남복차림으로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리관린을 보면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딴세상 사람이라도 구경하듯이 희한해서 쳐다보았다.

그런데 며칠 지내면서 보니 리관린은 이전보다 별로 생기가 덜한 것 같았다. 내가 화성의숙을 그만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몹시 놀라는 것이였다. 생각이 있어도 마음대로 가지 못해 다들 안달아하는 군관학교를 단념해버렸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의숙을 중퇴하게 된 리유와 전말을 듣고서는 용단을 잘 내렸다고 하면서 길림으로 가려는 나의 결심을 지지해주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민족주의계렬의 학교를 부정하고 사상적으로 결별해버린 나의 행동이 그에게 충격을 준 모양이였다. 감수성이 예민한 리관린은 분명 그때 내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를 목격하면서 독립군의 말로, 민족주의말로를 더 심각하게 느낀것 같았다.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아도 그는 이전보다 많이 달라졌는데 요새는 더욱더 말수더구가 적어지고 조용해졌다는 것이였다.

처음에는 그저 그 나이의 미혼녀성들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일종의 고민이 아니겠는가고도 생각하였다. 리관린의 그때 나이가 28살이였다. 14살이나 15살만 되어도 머리를 쪽지고 시집을 보내는 조혼의 시대였으므로 28살이라고 하면 다들 쇠서 못쓰겠다고 고개를 내저을 때였다. 리관린과 같이 혼기를 놓쳐버린 로처녀들이 일생문제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였다.

이런 일이 자주 되풀이되므로 나는 어느날 그에게 그사이 왜 그렇게 얼굴이 축가고 우울해졌는가고 물었다.

리관린은 한숨을 쉬면서 자꾸 나이는 드는데 만사가 신통치 않아서 그런다고 대답하였다. 성주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하루에 100리, 200리를 걸으면서도 힘든줄을 몰랐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하나해도 성수가 나지 않고 몸에 차고 다니는 권총에도 녹이 쓸 지경이니 어데다 마음을 의탁할데가 없고 야단이 아니냐, 독립군이 아무래도 대사를 치르지 못할 것 같애, 지금 독립군의 형세가 말이 아니야, 꼭대기에 있는 령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틀만 차리면서 상발(출근)도 하지 않고 싸움깨나 할만한 장정들은 집살림에 재미를 붙이고 총각들은 녀자들의 분내나 맡으면서 돌아가고 있지,… 며칠전에는 날파람있던 싸움군총각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독립군에서 나와 간도쪽으로 떠나가버렸구나, 모두들 눈치를 보면서 하나둘식 꼬리를 사리는 판이야,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는거야 어떻게 하겠나, 그렇지만 장가를 간다고 총까지 벗어던지면 조선독립은 누가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체면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였다.

나는 비로소 그의 고민이 리해되고 울분이 리해되였다. 처녀의 몸으로 시집도 안가고 독립운동을 위해 애를 쓰는데 멀쩡한 사내라는 것들이 총을 벗어던지고 안식처를 찾아 달아나는 판이니 그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글공부를 했다는 처녀들이 개화바람이 나서 신녀성행세를 하며 돌아갈 때 리관린은 륙혈포를 차고 압록강을 넘나들면서 왜놈군경들과 격전을 벌이였다.

녀자가 남복에 권총을 차고 직업적인 군인이 되어 외적과의 싸움에 나선 실례는 우리 나라 력사에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글에서 제목을 특별히 따로 설정하여 리관린의 생애를 더듬어보는 것도 이 점을 중시한데 있다. 남존녀비의 인습이 뿌리깊이 남아있던 우리 나라에서 녀자들이 권총을 차고 싸움마당에 나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였다.

외적에 대한 우리 나라 녀성들의 지난날의 저항방법이 시대마다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저항들이 많은 경우 봉건유교적인 정절관에 기초한 소극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외적이 침노하여 이 나라 인민들을 도륙하고 괴롭힐 때마다 녀성들은 몸을 더럽히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깊은 산중이나 절간 같은데로 피신해버리군 하였다. 미처 피신하지 못한 녀성들은 자결로써 놈들에게 항거하였다. 임진왜란때 나라에 등록된 렬녀의 수가 충신의 수보다 30배이상이나 더 많았다고 하니 이 나라 녀성들의 절개가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최익현이 대마도에 가서 단식으로 순국했을 때 그의 부인은 3년상을 마치고 자결로써 남편과 같은 길을 걸었다고 한다. 인륜의 도리로 볼 때에는 그것을 나라에는 충성하고 남편을 위해서는 절개를 지키는 최대의 도리라고 응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모두가 죽음만을 택한다면 원쑤는 누가 치고 이 나라는 누가 지켜주겠는가 하는 것이다.

나라가 근대화되면서 우리 녀성들의 사고방식과 인생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피신, 자결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적들에게 저항하던 이 나라의 녀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군경들의 총검앞에 가슴을 내대고 반일시위에 떨쳐나섰으며 적의 관공서에 폭탄을 던지였다. 그러나 손에 총을 잡고 녀성독립군으로 이국땅에서 10년유여의 세월을 무력항쟁에 참가한 녀자는 리관린밖에 없을 것이다.

리관린은 원래 인물이 잘나서 어데 가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남자들을 떼버리느라고 애를 먹던 녀자였다. 용모나 학식이나 가정환경을 보면 학교에 가서 교원도 할 수 있고 좋은 남편을 만나 남부럽지 않게 호강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한몸을 초개와 같이 독립운동에 바치었다.

그의 아버지는 삭주에서 여러 정보의 땅과 산림과 초가이기는 하나 10칸이나 되는 집을 가지고 자작농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중산층이였다. 그는 리관린이 12살 나던 해에 상처를 하여 2년후에 재취를 한다는 것이 16살되는 처녀를 데려왔다. 리관린은 자기보다 겨우 2살밖에 더 먹지 않은 녀자를 어머니라고 부를수 없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봉건이 심하여 딸이 15살이나 되도록 학교에 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적당한 혼처를 물색하여 시집보낼 궁리만 하고 있었다.

남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부러워 늘 공부를 시켜달라고 떼를 쓰던 리관린은 아버지의 처사에 불만을 느끼고 15살 때에 집을 뛰쳐나왔다. 그는 아버지가 어디로 간 사이에 슬그머니 압록강가에 나가 얼음구멍앞에 옷과 신발을 벗어놓고 그길로 의주에 갔다. 거기서 그는 먼 친척벌되는 사람의 도움으로 양실학교에 입학하였다. 반년쯤 배포유하게 공부를 하다가 가을이 다된 때에야 그는 아버지에게 학비를 보내라는 편지를 부치었다.

딸이 강물에 빠져죽은 줄로만 알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그의 아버지는 편지를 받고 너무도 기뻐 곧 의주땅으로 달려갔다. 그는 딸에게 이제는 네가 공부하는 것을 막지 않겠으니 요구되는 것이 있으면 아무때나 편지하라고 하였다. 리관린은 그때부터 학비걱정을 모르고 공부에 열중하였다, 성적도 우수하였으므로 학교에서는 그를 평양녀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에 추천하였다.

이렇게 한해두해 공부하는 과정에 그는 세상리치도 깨닫게 되고 우리 아버지의 보증으로 조선국민회에도 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당당한 혁명조직의 성원으로 지하활동에 참가하였다. 그가 우리 아버지한테서 ≪지원≫의 뜻을 배운 것이 바로 이때였다. 리관린은 평양녀자고보와 숭실중학교, 숭의녀학교, 광성고보의 학생들속에서 동지들을 흡수하기 위한 공작을 은밀히 하였다.

어떤 날은 그가 원족삼아 만경대에도 놀러 왔다. 우리 집에 와서는 아버지와 사업토의도 하고 어머니의 일손도 도와주었다. 교통조건이 불리한 때였지만 경치가 좋다고 봄이면 숭실중학교나 광성고보 같은데서 많은 학생들이 점심밥을 싸가지고 만경대로 놀러 오군 하였다.

평양에서 3.1인민봉기가 폭발하자 그는 시위대렬의 선두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시위가 좌절되면 기숙사에 들어가 잠깐씩 숨을 돌리고는 다시 만세를 부르면서 학우들을 고무하였다. 봉기가 실패하고 시위주모자들에 대한 검거선풍이 일어나자 그는 고향에 돌아가 직업적인 독립운동의 길에 나섰다. 망국의 운명을 끝장내기전에는 학창에서 공부나 하고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선것이다. 초기에는 오동진이 조직한 광제청년단에서 종무로 활동하였다.

리관린은 만주로 건너가기전에 벌써 고향에서 일본경관 두놈을 권총으로 쏴죽이고 압록강얼음구멍에 처넣어 세상을 놀래운 적도 있었다.

독립군에 입대한 후 그가 국내에 자금모연공작을 나왔다가 경찰에게 걸려들어 조사를 당한 적이 있었다. 리관린이 이고 가는 보퉁이속에 권총이 들어있었으므로 정황은 아주 위급하였다. 경찰은 그 보따리를 자꾸 풀라고 하였다. 리관린은 보따리를 푸는척하다가 재빨리 권총을 뽑아들고 경찰을 수림속에 끌고들어가서 처단해버렸다.

국내에 모연공작을 자주 다니다나니 그는 로상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 언제인가 그는 오동진이 주는 임무를 받고 평안남도일대에 나가 모연공작을 한 일이 있었다. 모연을 마치고 국내조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본영으로 돌아오던 그는 삼도만에서 하루밤 류숙하던중 근방에 있는 다른 무장단성원들의 협박을 받았다. 그때 두사람의 수중에는 몇백원에 달하는 돈이 있었다. 그자들은 권총을 꺼내들고 공포를 쏘아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두사람을 위협하였다. 동행하던 남자는 그 위협에 겁을 먹고 간수하고 있던 돈을 고스란히 내놓았다. 그러나 리관린은 한푼의 돈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호령질로 그들을 쫓아버리었다.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에는 유격대에 녀장군들이 많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녀성이 조선에는 없었다. 고보시절에 수놓이나 재봉 같은 것만 배우던 책상물림의 녀자인데 그처럼 용감하고 담력이 있었다. 한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같은 신문들이 리관린을 두고 굉장히 떠들었다.

리관린은 또한 절개가 굳고 대가 강한 녀자였다.

3.1인민봉기후 남만에서는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단체들이 저마다 다른 파를 무시하고 자기 파를 내세우면서 본위주

리관린

의를 하기 때문에 통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통합을 위한 론의는 매번 무의미한 입씨름과 마찰로 공회전을 하였다.

아버지는 통합운동이 직면하고있은 이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업에 독립운동의 원로들을 인입하려고 결심하였는데 그 첫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이 량기탁이였다. 적의 감시속에 있는 량기탁을 서울로부터 남만주까지 안내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였다. 아버지는 심중히 생각하던 끝에 그 적임자로 리관린을 선정하고 량기탁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어 그를 서울로 파견하였다.

량기탁은 민족주의자들속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평양 한학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부터 애국적인 신문활동과 교육운동으로 대중속에 반일독립정신을 배양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였다. 량기탁이라면 조선에서 처음으로 되는 ≪한영사전≫을 편찬하고 일본에 대한 국채보상운동을 지도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그는 ≪105사건≫으로 감옥살이도 여러해 하였으며 신민회와 상해림시정부(국무위원), 고려혁명당(위원장)조직에도 관계하였다. 이 사람이 오동진과 함께 정의부도 조직하였다.

이런 경력으로 독립운동자들은 소속에 관계없이 그를 존경하였다. 리관린은 서울에 나갔다가 형사들에게 붙잡혀 종로경찰서 구류장에 갇히였다. 적들은 그에게 매일같이 악착한 고문을 들이댔다. 코에 고추가루물을 부어넣기도 하고 참대침으로 손톱눈을 찌르기도 하고 두팔을 뒤로 제껴 천정에 매달아놓기도 하였다. 어떤 날에는 그를 마루바닥에 눕혀놓고 얼굴에 널판자를 올려놓은 다음 그것을 디디고 서서 발을 탕탕 구르기도 하였는데 고문할 때마다 중국에서 왔는가, 로씨야에서 왔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가 하면서 차고 때리고 짓밟고 하였다. 나중에는 두다리에 매운 재떡을 붙이고 석유를 친 다음 불을 달아놓으면서 태워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래도 리관린은 굴복하지 않고 나는 직업이 없어서 다니는 녀자다, 어느 부자집 침모나 보모를 하려고 서울에 왔는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붙잡아다놓구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가고 대들었다. 리관린은 하도 뻗대자 한달만에 놈들은 그를 놓아주었다.

그는 운신조차 할 수 없는 몸이였으나 기어이 량기탁을 데리고 흥경으로 들어갔다. 그때에 받은 그 고문의 후탈로 리관린은 흥경에 도착하자마자 병상에 매인 몸이 되었다. 동료들이 그를 간호하다 못해 차도가 보이지 않아 한 늙은 의사를 데려다가 진찰을 시키였다. 그런데 맥을 짚어본 의사는 태맥이라고 엉터리없는 진단을 내리였다. 이름난 미인한테 수작을 걸어보고싶었던 늙은 의사의 실없는 야유였는지도 모른다. 리관린이 하도 어이가 없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지고 들자 의사는 임신을 했다고 하였다. 의사가 말을 끝내기 바쁘게 리관린은 베고 있던 목침을 들어 그에게 냅다 던지면서 이렇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자식, 너 젊은 녀자가 시집도 안가구 독립운동을 하자고 나서서 총잡고 싸우는데 무엇이 배가 아파서 조롱하느냐, 나를 헐뜯어서 얻어먹을게 무엇이냐, 다시한번 말해봐라.≫

혼쌀이 난 의사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달아나버렸다.

리관린이 이런 기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그에게 중요한 과업을 많이 주군 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리관린은 무엇이든지 다하였다. 평양에 가라면 평양에 가고 서울에 다녀오라면 서울에 다녀왔다. 급한 련락을 가라면 련락을 가고 녀성계몽을 하라면 녀성계몽을 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국내공작을 할 때면 리관린은 그 수행원으로 따라다니면서 아버지의 신변호위도 하고 사업도 보좌해주었다. 그가 다닌 로정은 실로 수만리에 달한다. 의주, 삭주, 초산, 강계, 벽동, 회령 같은 북부국경일대와 간도지방은 물론, 순안, 강동, 은률, 재령, 해주를 비롯한 서선지구와 멀리 경상동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곳이란 거의 없었다.

리관린은 그 당시 우리 나라에서 처녀의 몸으로 백두산을 넘나든 첫 녀성이였다. 일생에서 가장 열렬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그 황금같은 청춘시절에 그는 이처럼 타향의 이슬비를 맞으면서 녀자로서는 힘에 부친 군인생활을 하였다. 애국의 일념밑에 몸에 권총을 두개씩 차고 소란스러운 세상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활약하던 그가 기울어져가는 독립운동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가슴이 아팠다.

내가 길림으로 갈 준비를 하기 시작하자 그는 자기도 나처럼 장차 길림에 가서 무엇인가 좀 해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리관린은 그후 그 결심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나는 길림에 가서 공부할 때 손정도네 집에서 두세번 그를 만나보았다. 그때 리관린이 시국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기에 나는 우리 나라 혁명의 전도에 대해 장시간 이야기해주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식이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정의부 지붕밑에서 뛰쳐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리관린은 공산주의를 좋다고 하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민족주의좌파였다.

나는 민족주의운동의 조락을 두고 번민하는 리관린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민족주의진영에는 리관린과 같이 사생활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애국지사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옳은 지도자가 없다나니 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ㅌ·ㄷ≫가 방금 첫 걸음을 뗀 때여서 그는 우리의 운동선에도 합류하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처럼 믿어주고 사랑을 기울여 키워온 리관린이 그 어디에도 마음을 의탁하지 못하고 번민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에 조선의 모든 애국력량을 하나로 결속하고 이끌어줄수 있는 참다운 지도세력이 없는 것을 통탄하였다.

리관린의 고민은 나로 하여금 우리 새 세대들이 혁명을 위해 더 분발해야겠다는 충동을 느끼게 하였다. 리관린처럼 올바른 방향타가 없어 모대기는 애국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시바삐 만사람을 공감시킬수 있는 새 길을 개척하여 나라의 독립을 지향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같이 하나의 흐름을 타고 싸워나갈수 있는 혁명의 새 시대를 마련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길림으로 갈 준비를 다그쳤다. 길림에서 마지막으로 리관린을 본후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우리는 줄곧 그를 찾았다.

우리가 동만에서 유격대를 무어가지고 활동할 때 그 대오에는 20대의 녀자들이 많았다. 남성들과 꼭같은 기개와 투지를 가지고 민족해방사의 새 장을 펼쳐나가는 그들의 용감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독립군의 녀걸 리관린을 생각하였다. 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나로서는 참으로 궁금하고 안타까왔다. 여러 경로를 통해 수소문을 해보았으나 그의 행방과 운명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길이 없었다. 조국이 해방된후 그의 고향 삭주에도 들려 찾아보았지만 거기에도 리관린은 없었다. 우리가 그의 행방을 처음으로 알아낸 것은 1970년대초였다. 우리 당 력사연구소동무들이 여러모로 탐문하던 끝에 그가 중국땅에서 아들딸 남매를 키우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관린과 함께 싸우던 사람들가운데서도 공영, 박진영과 같이 ≪ㅌ·ㄷ≫의 영향으로 공산주의물을 먹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갔다. 그들은 모두 혁명가답게 최후도 값있고 장렬하게 마치였다. 그러나 리관린은 자기를 이끌어줄수 있는 옳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탓으로 하여 투쟁을 중도반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도 오동진이 살아있을 때는 관전회의에서 선포된 무산혁명방침을 실현한다고 하면서 속도 많이 태우고 걸음도 많이 걸었다. 내가 길림으로 떠난 그해(1927년) 여름에 리관린은 장철호를 비롯한 독립군대원들과 함께 내도산에 가서 풀막을 치고 감자농사를 지으면서 군중계몽도 하였다. 오동진은 아마 내도산마을을 개척하여 독립군의 활동기지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오동진이 붙잡힌 다음에는 이런 활동도 다 흐지부지되었다. 민족주의좌파세력가운데서 공산주의조류쪽으로 제일 크게 기울어진 사람이 오동진이였는데 이런 기둥이 잡혀가다나니 관전회의방침을 실현하겠다고 몸을 내대는 재목도 없었다. 정의부안에 공산주의를 동조하는 인물들이 더러 있기는 하였으나 맥을 추지 못하였다. 3부의 통합으로 국민부가 나온후에는 민족주의상층도 급격히 반동화되어 공산주의라는 말조차 번지기 어렵게 되었다. 국민부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를 동조하는 민족주의좌파인물들에 대하여 일제경찰에 밀고하거나 암살해버리는 반역행위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리관린도 국민부테로분자들의 부단한 추격과 협박을 받으며 피신처를 찾아 헤매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중국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가정에 파묻히고 말았다. 상하사 불급이라는 말과 같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

거치른 만주땅에 새별처럼 나타나 세상의 이목을 끌며 원쑤들을 전률케 하던 ≪독립군의 꽃≫, ≪만록총중 일점홍≫은 이렇게 속절없이 시들어버렸다.

그는 비유해 말하면 민족주의라는 목선을 타고 먼 항행을 떠난 독립운동자였다. 고난과 시련이 끝없이 겹쳐드는 반일독립항쟁의 그 풍랑사나운 망망대해를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배였다. 그런 쪽배로는 도저히 조국광복이라는 목적지에까지 갈수 없었다.

숱한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항행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기슭에까지 가닿지 못하고 중도에서 주저앉아버리었다. 그렇게 주저앉아가지고서는 밥벌이나 하고 우국지사흉내를 내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구멍수만 찾아다니었다. 지난날 민족을 ≪대표≫한다고 하던 상층들가운데는 백고약을 만드는 소시민이 되거나 깊은 산속에 도피하여 중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었다.

변절은 안하고 가정에 파묻히거나 생업에 몰두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은편이였다. 리관린과 함께 민족주의항로를 헤쳐나가던 독립운동자들가운데는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의 앞잡이로 굴러떨어진자들도 있었다.

리관린은 우리와 헤어진 다음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이역에서 보내다가 여러해전에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내가 독립군시절에 자기가 그처럼 따르던 김형직선생의 아들 성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조국에 돌아오고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고 한다. 성주가 나라를 령도한다면 만민평등의 사회건설에 대한 김형직선생의 리념이 실현될 것인데 그 현실을 기어이 보고싶었다는 것이였다. 찬바람부는 만주광야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지으며 끝없이 그려보던 나서자란 그 산천에 묻히고싶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리관린이 귀국을 결심하기까지에는 여러해동안의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다. 그에게는 두 남매와 여러 손자, 손녀들이 있었다. 한번 떠나면 다시 넘어서기 어려운 만리타향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죄다 남겨두고 홀몸이 되어 조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한다는 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로인으로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였다.

그러나 리관린은 그 후대들과 영영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조국으로 기어이 돌아가리라는 결심을 내리었다. 리관린과 같이 담력이 큰 녀성이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대용단이였다. 그가 한창나이때 나라를 위해 청춘을 고스란히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런 용단을 내릴수 없었을 것이다. 조국을 위해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피도 흘리면서 온 넋과 육신을 다 바친 사람들만이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심장으로 깨달을 수 있다.

나는 리관린이 이역땅에 자식들을 다 떨궈두고 백발을 날리며 단신으로 조국에 돌아온 것을 보고 그의 불같은 조국애와 고결한 인생관에 탄복하였다.

무송에서 헤어질 때 20대였던 리관린은 그때 80고령의 백발로인으로 내앞에 나타났다. 뭇사람들의 눈길을 끌던 홍안의 아름다운 모습은 더는 찾아볼 길이 없었다.

그렇게도 애를 태우며 찾을 때에는 소식이 감감하던 리관린이 머리에 흰서리를 무겁게 이고 내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반세기이상이나 우리를 갈라놓고 있던 그 무정한 세월을 두고 서글픈 감회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리관린에게 평양시 중심부의 풍치좋은 곳에 살림집을 따로 마련해주고 나이를 고려하여 식모와 의사까지 붙여주었다. 그 집은 처녀시절에 그가 다니던 녀고보자리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김정일**조직비서가 리관린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런곳에 집을 잡아주었다. **김정일**비서는 그 집에 나가서 늙은이의 취미와 기호에 맞게 가구의 위치도 정해주고 조명과 난방상태까지 다 보아주었다.

리관린은 몸이 불편했지만 그 집 앞마당에 터밭을 일구고 강냉이를 심었다. 내가 어린 시절에 강냉이를 무척 좋아했기에 자기 손으로 강냉이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싶다는 것이였다. 반세기가 지난 때였지만 그가 내 식성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무송에 있을 때에도 여름철에 풋강냉이를 사다가 뒤뜨락에서 내 동생들에게 구워주군 하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젊은 시절이 공적을 생각하여 우리는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 장례도 잘 치르어주고 그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장하였다.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그 어느곳에서 살든지 선조의 무덤이 있고 자기의 태가 묻힌 낯익은 강산으로 찾아오기 마련이며 설사 다른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어느때인가는 이렇게 만나 정을 나누게 되는 법이다.

송시

2월의 봄

철을 따라서만
봄이 옵니까
산에 들에
꽃이 피어서만
봄이라 부릅니까

계곡을 따라 들려오는
줄기찬 물소리 아직 없고
먼산에 무지무지
흰눈이 남아있어도

마음 속엔 조용히
뜨거움 솟구쳐 오릅니다
가슴 속엔 다정히
새움 트고 내돋습니다.

아 봄입니다
2월에 깃드는
인생의 봄
내조국의 봄

김정일장군님
밝은 미소 지으시고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남먼저 맞이하는
민족의 새봄입니다

자애로운 그 미소 속에
하늘이 파랗게 열리고
밝고 따뜻한 햇살 쏟아져
희망찬 미래 펼쳐집니다
언가슴 풀어지고
더운피 흐릅니다

백두에서 시작된
2월의 봄
자연의 철을 따라
오는 봄이 아니고
지구의 지역을 따라
맞이하는 봄이 아닙니다

계절을 앞당겨
오는 봄
휴전선을 넘어
펼쳐오는 봄

3천리 곳곳에
축원의 노래 울리고
온 겨레의 가슴에
꽃으로 설레이는

아 환희의 봄입니다
통일을 안고 오는
내나라, 내민족의 봄
통일된 강성대국을 안고 오는
2월의 새봄입니다

나는 ≪**김정일**거리≫를 지나왔다
주체89(2000)년 2월 21일

새천년 2월아침
격앙된 심장의 박동에 떠밀려
나는 거리로 뛰쳐나왔다
몸은 여기 서울도심 세종로에 섰어도
내 마음의 거리는 저 대양건너 …

사업차로 찾았던 가이아나
코리버튼시에
우리 장군님 존함으로 빛나는

아, ≪**김정일**거리≫!

그 거리에 들어서며
나 얼마나 열광했던가
온 세계가 추앙하는 위인을
민족의 영수로 모셨다는 자긍심
에
나는 어깨 으쓱 아이처럼 활개
치며
열번도 더 거리를 오갔나니

그 나라 뿐이랴
토고의 ≪**김정일**도서관≫
베닌의 ≪**김정일**장군 만세 친목
회≫
스웨덴의 ≪북유럽 **김정일**화협
회≫…
세상은 온통 **김정일**세상

그날 그때부터 명백히
내 인생주로는 평양행
내 삶의 종착점은 위대한 영수
님 품

그때처럼 나 항상
씩씩할거야
용감할거야
희망찰거야

하여 어젯날엔 아프리카의
≪**김정일**거리≫를 지나왔건만
내일은 기필코 통일서울의
≪**김정일**거리≫에 들어설거야

흠모

김정일장군님의 정치실력을 높이 칭송

세계의 정계, 사회계가 **김정일**장군님을 희세의 정치가, 특출한 실력가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페루 민주와 연대당 총비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은 복잡한 국제정세하에서 선견지명의 예지와 비범한 영도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나가는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실력을 과시하시었다면서 그로 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이북과 수교를 맺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했다.

조선통일지지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위원회 서기장은 **김정일**각하께서는 탁월한 지략과 정치적 결단성을 지니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고난의 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시었고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시었다면서 그분을 21세기를 이끌 위대한 영도자로 높이 칭송했다.

전 인도농민연맹 연합서기는 이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변들은 민족의 위대성이 인구수나 영토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수령이 위대하면 나라도, 민중도 위대해진다는 진리를 보여준다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를 받는 이북은 언제나 백전백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팔노동자농민당 위원장은 ≪인구수나 영토에 있어서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그 어떤 대국이나 연합세력의 횡포 앞에서 추호의 굴함을 모르고 오히려 상대를 궁지에로 몰아넣고 마음먹은대로 다루어나가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그 누구도 감히 이런 조선을 건드릴 수 없으며 건드리는 것 자체가 무서운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알고 있다. 그러기에 미국은 자기 요구에 응하지 않는 나라들을 임의의 시각에 무차별공격하면서도 사회주의조선만은 감히 다치지 못하고 있다≫고 극구 찬양했다.

반이회창투쟁과 국민의 자세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15일

최근 통일애국단체들을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민중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을 모해압살하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추구하면서 민족반역의 길, 반통일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는 이회창의 범죄행위를 단죄규탄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서총련 등의 참석하에 진행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총결산대회에서는 미국에 붙에 공동선언이행을 앞뒤에서 방해하는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역적을 규탄한다는 반이회창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조국의 통일과 번영의 유일한 길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남북해외 7천만 겨레와 굳게 단결하여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민족을 배반하고 외세에 추종하는 민족의 역적 이회창을 정계에서 영원히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할 것이다.≫라고 자기들의 투쟁결의를 표명했습니다.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청년학생연대준비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반통일세력의 우두머리인 이회창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선언이행을 한사코 막아나서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자는 것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폭로했습니다.

청년학생들은 성명에서 ≪외세의 간섭없는 통일만이 7천만 민족의 살길이며 반통일세력들의 존재가 오래지않아 끝난다는 것은 50여년 분열민족사의 교훈이며 국민다수의 상식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에 역행하여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회창과 한나라당의 어떠한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범청학련 남측본부, 전국연합을 비롯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민중은 외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로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마련하고 미국의 대북긴장고조정책철회, 반전평화미군철수운동을 더욱 강력히 벌이며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세력반대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그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계 민중이 반이회창투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것은 반통일세력을 척결하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족의 확고한 의지와 온 국민의 일치한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회창은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위배되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민족자주가 아니라 사대와 외세의존을 추구하고 조국통일이 아니라 민족의 영구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민족반역자이고 반통일분자입니다.

지난 1월말 미국행각을 통해서도 그는 다시한번 자기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았습니다.

이회창이 미국행각시에 군부호전계층을 비롯한 미국상전들을 찾아다니면서 남북관계진전을 가로막아보려고 상호주의니 투명성이니 검증성이니 하며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고 한미공조를 운운하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그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만고대죄를 저지른 이회창의 죄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그 자신은 민족의 역적으로써 온 겨레의 분노와 투쟁의 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반이회창투쟁을 벌이는 것은 공동선언의 성과적 이행은 물론 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절박하고도 필수불가결의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이회창투쟁에 대한 태도는 민족자주와 사대, 통일과 분열의 척도를 재는 기준으로 됩니다.

각계 민중은 반이회창투쟁이 갖는 의미를 똑바로 인식하고 그의 사대주의적이고 외세의존적인 발상과 반통일적인 작태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사소한 타협도 없이 완강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나가야 합니다.

통일애국단체들과 각계 민중은 이회창의 범죄적 죄악을 폭로규탄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온 국민이 반이회창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홍보활동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투쟁의 위력은 단결에 있습니다. 민족자주,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국민이 굳게 단합하고 통일애국단체들을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민중이 연대연합해서 반이회창투쟁을 벌이는 것은 반통일세력을 무력화시키고 통일애국세력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 요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세의 비호밑에 이회창을 비롯한 냉전수구세력과 호전분자들이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거세말살하고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더욱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회창과 같은 민족반역자들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들과 각계 민중은 외세에 아부추종하는 이회창반통일집단을 반대하는 연대투쟁에 주저없이 나서야 할겁니다. 바로 여기에 국민이 살 자리가 있으며 반이회창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수고 자주통일의 길로 나가려는 우리 민중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각계층 민중은 사대와 외세의존을 추구하며 반통일책동에 집착하고 있는 이회창을 수괴로 하는 민족반역집단, 반통일집단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감으로써 민족자주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17일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중국특명전권대사접견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2월 10일 이북 주재 중국 신임특명전권대사 무동화를 접견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새로 부임되여 온 무동화특명전권대사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셨습니다.

2월명절 맞아 푸틴러시아 연방대통령이 축하친서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그분의 탄신절에 즈음해 푸틴러시아연방대통령이 축하친서를 드렸습니다.

축하친서는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그분께 축하를 드렸습니다.

축하친서는 사회경제적 복리를 위한 이북의 전진운동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에 기초한 두 조선국가의 대화와 남북의 자주적인 가일층의 접근을 지지찬동했습니다.

축하친서는 2001년에 진행된 **김정일**영도자님의 모스크바 방문시 이룩된 전략적인 합의들을 시종일관하게 이행하려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축하친서는 러조협조가 커다란 강제력을 가지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두 나라 민중들사이에 친선의 우애가 모든 분야에서의 유익한 상호협력을 발전시키는데 좋은 기초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축하친서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했습니다.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국제연단 평양에서 진행

평양방송에 따≪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의 국제연단이 15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국제연단에는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에 참가하러 온 국제기구일군들과 지역 및 여러 나라 대표단,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 등 관계부문일군들이 국제연단에 참가했습니다.

조선통일지지아시아지역위원회 명예위원장의 개막사와 축하연설이 있었습니다.

조선민중과의 친선 및 연대아프리카지역위원회 엔. 티. 마웨마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일본 교직원주체사상연구회 연락협의회 회장, 조선통일지지스위스위원회 위원장, 베네수엘라 라라주 빨라베씨노시 의 시장 등 여러 인사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연사들은 오랜 정치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대한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쌓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연사들은 **김정일**영도자님의 자주정치의 특징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는 정치이고 모든 문제를 자기 실정에 걸맞게 풀어나가는 정치이며 자체의 힘에 의거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위원회 에밀리아 페르난데스부위원장이 폐막사를 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성대히 진행한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이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로 이북 민중의 위업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과시한 뜻깊은 계기로 됐다며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의 폐막을 선언했습니다.

2월명절 맞아 중국공산당에서 축전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그분의 탄신절에 즈음해 중국 공산당에서 축전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축전은 **김정일**영도자님께 그분의 탄신절에 즈음해 열렬한 축하를 드렸습니다.

축전은 **김정일**영도자님의 영도하에 이북의 전당, 전군, 전민은 일심단결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발휘해 부닥치는 난관들을 극복했으며 조선식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며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축전은 오늘 **김정일**영도자님께서와 장쩌민총서기의 중시와 관심속에서 그리고 두 당과 두 나라 민중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키워주신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며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축전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17일

비전향장기수들과 오익제부위원장이 편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비전향장기수들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오익제가 각각 편지를 드리였다.

편지들은 탄생일을 맞으시는 **김정일**령도자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그이께서 백두산에서 탄생하신것은 조선인민에게 영원한 수령복, 장군복을 안겨준 대행운이였으며 민족의 창창한 앞날을 기약해 준 력사적사변이였다고 지적하였다.

비전향장기수들은 편지에서 우리 조국이 선군령도로 강성대국건설의 뢰성을 터치며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있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저희들은 삶이냐 죽음이냐 하는 남쪽의 감옥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면서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조국은 끄떡 없고 혁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변함 없는 신념을 더욱 굳게 다지였습니다.

해마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이 오면 저희들은 설레이는 가슴을 억제하지 못하며 새벽부터 온 감방이 떠나갈듯 한 통방신호로 경축분위기를 높이면서 흥분해 마지 않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며 장군님께 끝까지 충성 다할 철석의 맹세를 다지군 하였습니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지켜 끝까지 싸워 이길수 있었으며 지옥의 문앞에서 행복의 락원으로 인생전환을 하는 꿈 같은 현실을 맞이하고 세상이 다 아는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고귀한 칭호와 더불어 가장 값 높은 참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파란과 격동에 찬 20세기를 자랑찬 승리와 영광으로 마무리한 우리 인민은 새 세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 따라 반드시 이 행성우에 가장 존엄 있고 무궁번영하는 불패의 자주강국, 통일강성대국을 일떠세울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 철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통일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성스러운 투쟁에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한몸 다 바쳐 가겠습니다.

오익제는 편지에서 곡절 많은 인생을 살아 온 자기가 경애하는 령도자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새 인간으로 다시 태여나고 새로운 참세상을 맞이한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 조국과 인민에 대한 령도자님의 사랑은 이름 높은 선군정치에 그대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선군정치는 인민의 참삶을 지키고 더욱 빛내여 나가는 사랑의 정치입니다. 그것은 애민, 애족, 애국의 정수이고 나라의 통일과 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보검입니다.

지금 미제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세계도처에서 침략전쟁의 화염을 뿜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긴장한 정세를 생각하면 선군정치를 펴오신 령도자님의 선견지명에 감복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사랑과 증오가 명백하면 실패를 모른다는 말과 같이 령도자님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원쑤에 대한 증오가 가장 명백하고 철저한 위인이시며 그 어떤 외세의 침략에도 나라를 굳건히 지켜 반드시 승리할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십니다.

참으로 령도자님은 이 세상 제일의 위인이시며 령도자님께서 계시여 조선은 백두산처럼 높이 솟아 영원을 사는 불사신의 나라로 그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저는 령도자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생이 진할 때까지 령도자님을 받들어 몸과 마음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편지들은 온 민족과 더불어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안녕하시옵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 방문단이 편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 방문단성원일동이 편지를 드리였다.

편지는 탄생일을 맞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 그이께서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것은 주체조선의 무궁한 번영을 알리는 민족사의 대경사였으며 자주시대의 가장 걸출한 위인의 출현을 알린 인류사의 일대사변이였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2월이 있어 지난 날 민족수난기의 가장 비극적인 운명의 체험자들이였던 우리 해외동포들이 오늘은 바람 세찬 이역땅에서도 천하제일위인국, 천하제일행운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세기를 이어 누려 가며 애국애족의 성스러운 한길을 변함 없이 걸어 가고 있다고 편지는 지적하였다.

우리들은 천하제일위인을 모시여 민족의 존엄과 조국의 위상이 반만년 민족사상 최고경지에 이른 가슴 벅찬 현실을 보고 있으며 21세기 통일강성대국의 휘황한 래일을 확신성 있게 내다보고 있다고 편지에는 강조되여 있다.

편지에는 우리 해외동포들은 가까운 앞날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의지를 불 타는 애국의 심장을 다 바쳐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겠다고 지적되여 있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 이란 군사령관이 선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이란이슬람공화국 군사령관 모함마드 쌀리미가 선물을 보내여 왔다.

선물을 15일 조선주재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무관 아브둘라흐 하미디 베남이 해당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 시사회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맞으며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가 대기념비적걸작으로 완성되였다.

영화에는 **김정일**령도자께서 당과 군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수십년간의 빛나는 로정과 불멸의 혁명업적이 종합수록되여 있다.

영화는 그이께서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군건설과 군사활동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데 대한 력사자료들을 편집하고 있다.

또한 문학예술혁명과 출판보도혁명, 사회주의건설, 조미대결전 등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해 폭 넓고 깊이 있게 보여 주고 있다.

16일 이 영화에 대한 시사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 항일혁명투사들,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군들, 근로자들이 영화를 관람하였다.

조선에서 2월의 명절을 뜻 깊게 경축

조선에서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뜻 깊게 경축하였다.

2월 16일, 혁명의 수도 평양과 각 도, 시, 군 소재지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거리와 마을, 구내들은 명절일색으로 단장되여 있었으며 나라의 방방곡곡에서는 인민의 기쁨 넘친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도의 곳곳에는 ≪경축 2.16≫,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등의 구호들과 글발들이 걸려 있었으며 당기, 공화국기, 붉은기들이 나붓기고 있었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조선혁명박물관, 장산혁명사적지, 제6차 **김정일**화전시회장, 2.16경축 국가미술전람회장 등을 참관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극장들에서는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건설장들에서는 충성의 노래모임과 체육 및 오락경기가 있었다.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무도회장 상공에 줄축포가 오르고 화려한 춤바다가 무도회장에 펼쳐 졌다. ≪조선의 행운≫, ≪2월은 봄입니다≫ 등의 노래선률이 울려 퍼지고 장고춤, 체육무용이 펼쳐 져 경축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였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이 청년학생들과 함께 춤을 추었다.

공원, 유원지들에서도 춤바다, 꽃바다가 펼쳐 졌다.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 총련 금강산가극단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2.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 단장인 총련 금강산가극단 리장준단장은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명절중에서도 제일 경사스러운 명절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조국에서 맞이하면서 우리 총련 금강산가극단의 전체 예술인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그이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뜻 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꽃중에서도 제일 향기로운 꽃, 애국의 꽃을 삼가 드리려는 재일동포들의 심정을 반영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가지고 왔다.

작품창조과정에 우리의 마음은 줄곧 경애하는 장군님께로만 달렸다.

우리들이 총련을 압살하려고 날뛰는 일본반동들의 망동에 당당히 맞서 싸울수 있은것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힘으로 되였기때문이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위대하고 강대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주체의 강성총련건설에 적극 떨쳐 나설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서울시 동대문구 일대에 ≪아리랑≫에 대한 광고선전물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 방송에 의하면 서울시 동대문구 일대에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한 광고선전물이 나돌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5월1일경기장전경을 배경으로 태양회의 명의로 된 엽서규격의 선전물 앞면에는 ≪평양, 민족의 숨결 아리랑공연 대성황리에 준비≫라는 글발밑에 우아한 민속무용복을 입은 녀인의 매력적인 춤모습이 천연색그림으로 형상되여 있고 그 아래에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공연≫이라는 글발이 씌여 져 있었다.

선전물 뒤면에는 ≪아리랑≫ 노래 악보를 바탕으로 ≪아리랑, 민족의 대재보≫, ≪가자 평양대축전장으로≫라는 글발이 찍혀 져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강성대국 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

로동신문 사설 주체91, 2월 16일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시고 전반적인 사회주의위업과 세계정치를 주도해 나가시는 현 세기의 로련한 정치원로이시다.

오늘의 21세기는 거창한 변혁의 세기이며 첨예하고도 심각한 반제투쟁이 벌어 지는 세기이다.

21세기에 이르러 세계무대에서는 예상치 않았던 사태가 련이어 일어 나고 진보와 반동, 자주세력과 지배주의세력과의 투쟁이 가장 치렬하게 벌어 지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의 세계에서 일어 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에 명백한 해답을 주시며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언제나 사태의 본질을 환히 꿰들고 멀리 앞을 내다보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리시는 판단과 펼치시는 지략은 언제나 정확하고 백발백중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사소한 편차도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 ≪일극화≫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해 나가는 새 세기의 진로가 밝혀 지고 사회주의재건운동의 확고한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반제투쟁의 귀감이 창조되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높은 권위로 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다함 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 계신다.

세계의 수많은 국가지도자들, 명망 높은 사회계, 정치계, 학계, 예술계 인사들과 뜨거운 친분관계를 맺으시며 지어는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매혹시키시는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실 때 펼쳐 진 화폭들은 장군님의 국제적권위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우리 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높은 존엄을 떨치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품이 위대하고 권위가 절대적이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권위는 수십성상의 혁명투쟁력사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으로 하여 지니게 된 절대적인 권위이며 만민이 누구나 칭송하며 흠모하는 가장 높은 권위이다.

온 세계가 21세기 태양으로 우러르는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고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긍지 높고 행복한 인민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따라 주체위업의 완성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평화로운 시기에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나 변함없이 오직 자기의 령도자 **김정일**동지만을 믿고 따르며 받들어 나가는 끝 없는 충실성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오랜 세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길을 걸어 왔다.

우리모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신 20세기의 장엄한 투쟁속에서 자라난 장군님의 아들딸들이며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는 지금 억천만번 죽더라도 장군님의 참다운 혁명전사로 끝까지 싸워 나갈 절대불변의 신념이 깊이 간직되여 왔다.

우리는 이 신념, 이 맹세를 지켜 21세기의 보람찬 년대와 년대들을 충성의 위훈으로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김정일결사옹위의 구호는 **김정일**세기로 불리우는 오늘의 세기에 살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이 최고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실천의 구호, 생활의 구호이다.

강성대국의 앞날도 수령결사옹위에 있고 주체위업의 완성도 수령결사옹위에 있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순간을 살아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살고 한생을 바쳐도 수령결사옹위의 길에 바쳐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여 들고 감옥과 단두대도 두려워 하지 않는 참다운 충신이 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 혁명사상에 기초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누구나 다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여야 한다.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승리의 기치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일심단결이 있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오랜 세월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혁명해 오는 로정에서 장군님의 위대성에 완전히 매혹되여 장군님과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 해나가는 수천만 전사들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수령숭배,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결정체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였고 ≪고난의 행군≫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선군혁명의 길에서 백배천배로 다져 진 우리의 일심단결의 대풍모가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새 세기의 장엄한 투쟁에서 더욱 활짝 꽃 펴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혁명의 뇌수이시며 단결의 중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순탄한 날에나 준엄한 시기에나 장군님을 깨끗한 량심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받들어 모시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던 그때의 정신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며 일심단결의 대가 이어지게 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에서 끝 없는 충실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우리 조국이 끝없는 번영을 이룩해 나갈수 있게 하는 생명선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십성상에 걸치는 성스러운 로정을 걸어 오시면서 위대한 인간,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빛나는 귀감을 창조하시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통하여 우리 조국의 영예와 존엄이 어떻게 높아 지고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과 밝은 미래가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온갖 로고를 바치시며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걸으시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남기신 령도사적을 끝없이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수령제일주의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은 새 세기의 가장 보람찬 사업이다.

강성대국은 우리 당과 인민의 리상이며 투쟁목표이다.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며 행복의 요람인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더 많이 일하고 실적을 올리는것보다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은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한결같이 떨쳐 나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사회주의건설구상을 활짝 꽃피워 나감으로써 백승의 력사를 창조해 온 영웅적인민의 기상을 새 세기의 진군길에서 힘 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을 대담하게 최신기술로 갱신하고 도처에 일떠선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이 커다란 은을 내게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라남의 봉화 따라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올해를 빛내이기 위하여 다진 결의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전 기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시였다.

제국주의호전분자들과 분렬주의세력들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지만 자주통일에로 향한 민족사적흐름을 절대로 가로 막을수 없다.

온 겨레가 우러르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있고 옳바른 민족통일강령이 있는 한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이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 주고 있고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실록이 우리 인민들을 영웅적투쟁에로 힘 있게 고무해 주고 있다.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인민들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새 세기의 진군가로 높이 부르며 이 땅우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것이다.

21세기의 위대한 향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 (끝)

부시방한 D-1, 평화선언 · 시국농성 이어져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각계각층의 평화선언과 시국농성이 진행됐다.

18일 오전 10시 명동 YWCA대강당에서는 종교, 여성, 문화예술, 시민, 민중단체 등 각계각층 700명이 모여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700인 평화선언≫은 지난달 25일 ≪6월 사랑방≫의 주선으로 열렸던 ≪부시 방한에 즈음한 시국간담회≫에서 처음 제기되어 2월 18일 우리사회의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각계인사 700인의 의견을 결집하여 발표되었다.

≪평화기원 촛불 점화식≫에 이어 문정현 소파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평화선언을 하는 오늘 아침 매우 설레였다≫고 소감을 밝힌 뒤 ≪1,200명이 모여 안되면, 12만명이 서울시내에 누워 부시방한을 막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또, 정현찬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은 ≪부시가 방한을 하려면 한국전쟁 때의 양민학살과 노동자, 농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경제침탈에 대해 먼저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영화배우 방은진씨가 함께 낭독한 ≪평화선언문≫에서 주최측은 △대북강경정책 중단 △6.15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간섭 중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과 북 당국자의 공동노력 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이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며 마무리 된 이 날 평화선언에는 서울 용마초등학교 6학년 정하영 학생이 노래 ≪그날이 오면≫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눈길을 끌기도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미대사관 옆 열린시민마당에서는 ≪전쟁반대 평화실현, 대북적대정책 철회,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를 위한 부시방한반대 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홍근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부시는 평화를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평화를 반대하는 인사≫라며 부시방한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최측은 △전쟁책동 중단 △내정간섭 , 6.15공동선언 방해중단 △MD강요, 무기강매 중단 △한미투자협정 폐기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이 막아서자 강하게 항의하며 그 자리에 앉아 ≪부시방한반대 시국농성≫을 시작했다.

12시부터 시작된 이날 미대사관 옆 시국농성은 오후 5시 30분경 까지 계속되다 참가자 전원이 연행되어 종암경찰서와 청량리경찰서 등으로 분산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2/18

민주노동당 소속 예비역 군인들 기자회견

부시방한반대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잇는 가운데 예비역 군인들까지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소속 예비역 군인들은 18일 오전 11시 미대사관앞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전쟁에 동원되어야 하는 향토예비군복장을 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다. 이상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에 앞서 ≪예비역 군인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땅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민족이 모두 전쟁에 내몰린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상징적 의미≫라며 ≪민주노동당은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올 부시 방한을 절대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예비역 군인들은 반전선언문을 통해 ≪북에 대한 악의 축 발언은 사실상의 전쟁선포≫라며 ≪그동안 분단된 한반도에서 강요된 냉전을 위해 국토방위에 젊음을 바쳐왔던 예비역 군인들은 부시와 김대중 정부에게 전쟁과 방한을 반대하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반전선언문은 △ 전쟁발언을 중단하고 북미대화에 나설 것 △ 차제에 작전지휘권을 즉각 한국정부에 이양할 것 △ 용산미군기지를 기존의 미군 기지로 이전할 것 △ 한국 정부는 민족의 자존을 걸고 부시 방한에 반대할 것 △ 이러한 미국의 전쟁분위기가 계속될 경우 민주노동당은 전쟁반대, 미국반대, 김대중 정부 반대투쟁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예비역 군인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반도 전쟁을 부추기는 ≪악의 축≫ 발언등에 대한 규탄과 함께 항의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기도 해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미국에 과잉충성하는 것 아니냐≫며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

최범수기자
유뉴스 2002/02/18

10개사회단체 부시방한반대 농성돌입

전국민중연대(준),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등 10개 사회단체들은 부시 미대통령 방한 예정일을 하루 앞둔 18일 광화문 열린 시민마당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일삼는 부시대통령의 방한반대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부시, 우리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등 부시 방한반대의 입장 적어놓은 피켓을 들고 부시의 △대북 강경 정책 철회 △MD강요, 무기강매 중단 △6 · 15공동성명 실현 방해 책동 중단 △한미투자협정 폐기 등을 요구했다.

자통협의 홍근수 목사 등 사회단체 대표자 3명은 이들의 뜻을 담은 항의서안을 미 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전경들은 ≪미대사관의 공식적 휴일이라 항의서안 전달도 못할텐데 왜 가려고 하냐≫며 이들의 길을 가로막았다.

이들은 ≪전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일인데 전경이 가로막는 것은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 전경과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박진영 대표(청년통일광장)등 2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소파개정국민행동 공동대표인 문정현 신부는 부시반대 발언 도중 지난 1월 부시대통령이 과자(프리첼)을 먹다 졸도했을 때 이를 미국의 전쟁위주의 정책과 연관하여 꼬집는 내용으로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던 ≪기특한 과자≫라는 노래를 불러 농성 참가자들의 앵콜 요청을 받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예비역 당원들은 미대사관 앞에서 예비군복을 입고 ≪우리는 군대에 갔다 왔지만 평화를 사랑한다≫는 이색 시위를 펼쳐 오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전교조 역시 부시 방한반대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2백 44명 전교조 지회장들의 ≪미국이 패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우리 민족 문제에 간섭, 방해하려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적은 항의 서안을 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미대사관의 휴업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미대통령 방한 예정일인 19일을 기점으로 반미 집회는 절정에 이를 듯 보인다.

부시방한반대 제단체 연석회의는 부시 미대통령 방한일인 19일 반미집회, 그림자 투쟁 외에도 20일 종묘공원에서 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반미를 외치며 대규모의 집회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그 외에도 전지역에서 각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미집회, 토론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김세옥기자
시민의 신문 2002/02/18

남북의 6 · 15 공동선언 이행에 간섭말라

각계인사 7백명, ≪평화선언≫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오늘(18일) 오전, 서울 YMCA 대강당에서는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종교 · 여성 · 문화 · 예술 · 시민 · 민중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 700여명은 이날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 선언≫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음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전했다.

인사말에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김현숙 상임 대표는 ≪이번 평화 선언은 최근 부시 미국대통령의 비외교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는 자리다≫라고 의의를 전한 후 ≪곧 열릴 한 · 미 정상 회담을 통해 남 · 북의 평화를 촉구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현찬 의장은 부시 방한을 통해 ≪△양민 학살에 대한 사과와 보상 △쌀 정책 보장 등을 꼭 약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여성 영화인협회 방은진씨와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낭독문을 통해 △미국의 강경 정책 중단 △이북과의 협의 정신 존중, 진지한 대화 모색 △6.15 공동선언 조속 이행, 평화 통일 성취 △김대중 정부의 전쟁 반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행동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에는 평화를 기원하며 촛불 점화식과 평화의 바이올린 연주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그날이 오면≫을 연주한 정하영(용마 초등학교 6) 어린이는 ≪우리 나라는 우리거니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뒀음 좋겠어요. 또 전쟁은 안 좋은 거니까 안 했음 하는 바람이에요≫라고 말했다.

김장효숙기자
유뉴스 2002/02/18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음을 엄숙히 선언한다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선언

1. 미국은 기어코 한반도에서마저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가?

부시대통령은 방한을 앞에 두고 행한 2002년 연두 국정연설에서 이란, 이라크와 함께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우리를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위험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부시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북에 대한 군사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우리는 이북이 1994년 ≪북미기본합의서≫(제네바 합의)를 체결한 이래, 이 합의서에 따라 핵을 동결해 왔으며, 1999년부터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미사일 시험발사도 중단해왔음을 알고 있다. 또 1987년 이후 테러에 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으며, 국제 반테러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도 최근 ≪이북이 테러를 지원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던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사실은 이북에 대한 미국의 공격위협이 ≪반테러 전쟁≫이라는 그들의 기준에 비추어보았을 때도 그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맹방인 유럽연합의 여러 나라들과 중국 · 러시아 등 지구상의 대다수 국가와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같이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에 의한 새로운 전쟁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전쟁을 통해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테러 문제마저도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경고하고 나서는 현실도 부시대통령과 미 행정부의 주장이 억지 논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대 테러전쟁을 한반도로 확대할 어떠한 명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하면서 부시정부가 대한반도정책을 평화 지향의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 미국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갈 초강경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북과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진지한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 이북은 1994년 ≪북미기본합의≫와 2000년의 ≪10 · 12북미공동성명≫에서 이북의 핵개발 동결과 미사일 발사 중단, 그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과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이북이 이를 어겼다는 증거는 없으며, 미국도 이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이북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약속 불이행 등 합의사항을 어겼다는 증거만 분명할 뿐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재래식무기의 후방배치와 미사일 수출금지 등을 사실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이북의 양보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노골적인 압박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북-미간 또는 남북간 상호 군축 방안을 내놓는 대신 이북에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북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항복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대화를 통한 북미관계 개선을 약속한 ≪북미기본합의서≫와 ≪10 · 12북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미국의 일방적인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훼손하고 한반도와 한반도에 사는 무고한 사람들을 대량파괴와 살육의 전쟁으로 몰고 가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국제적인 협정과 합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지구촌 대국의 책무를 방기하는 정책이다.

50여년 전 한국전쟁의 처절한 비극을 몸소 겪은 바 있고,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화를 목도한 바 있는 우리 겨레는 남이냐 북이냐를 떠나서 그 어느 누구도 겨레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전쟁을 결코 원치 않는다.

이에 우리는 부시대통령과 미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초강경 대북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클린턴 행정부 시대에 체결된 탈냉전-평화 지향의 ≪북미기본합의서≫와 ≪10 · 12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가 이북과의 진지한 대화를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미국은 ≪6 · 15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과 북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

21세기 한반도는 지난 20세기 강대국에 의해서 강요된 분단의 사슬을 끊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2000년 6월 15일 분단 55년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6 · 15공동선언≫을 계기로 남과 북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칠 것을 온 겨레와 세계만방에 엄숙히 선언한 바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루어지는 방한에서 부시대통령은 F-15K 등 무려 100억 달러에 가까운 미국제 무기의 구입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은 이북위협을 빌미로 미사일방어체제(MD)에 남한을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집요하게 하고 있다. 이는 남북간의 긴장과 대결을 부추겨 전쟁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6 · 15공동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훼손하는 것이며, 21세기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정책이다.

이북에 대해서는 재래식무기 감축을 요구하면서 남한에게는 무려 100억 달러에 가까운 살상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것이나, 한해 국방비로 무려 3천 8백억 달러를 쓰는 초강대국 미국이 연간 15억 달러의 군사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

➔ 12면으로 이어집니다

광주.전남 교수 200여명 부시 방한 관련 시국선언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수들이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 하루전인 18일 시국선언을 했다.

전남대 최 협, 조선대 백수인 교수, 목포대 서창호, 순천대 임성운, 광주대 은우근, 광주교대 박정환 교수 등 이 지역 대학교수 205명은 이날 오전 광주 YMCA에서 부시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수들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우리 정부가 우방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추진해온 ≪햇볕정책≫과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전쟁 위기와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편승하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반민족적 친미 사대주의를 경계하며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국내외의 어떤 무력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미 현안에 대한 미국의 오만한 태도는 민족.국가간 상호평등 정신에 입각한 이해와 협력보다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기인한다≫며 ≪미국은 대북 강경책을 포기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힘의 우위≫ 정책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0년대 이후 지역 대학교수들이 외국 정상의 방한에 즈음해 시국선언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광주전남 통일연대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우리민족 서로 돕기운동본부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후 광주공원에서 ≪부시 방한 규탄대회≫를 갖고 광주 YMCA까지 평화행진을 벌인다.

또 광주전남 민중연대 소속 13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낮 12시부터 광주역 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여수사랑 청년회 소속 회원 50여명도 여수 교동 5거리에서 규탄대회를 갖는 등 부시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이 지역 곳곳에서 결의대회 및 규탄대회가 열렸다.

남현호기자
연합뉴스 2002/02/18

한총련, 미상공회의소 기습농성

한총련학생 미상공회의소점거

한총련 소속 학생 30여 명이 18일 낮 12시50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빌딩 45층 미 상공회의소를 점거한 채 농성에 돌입했다.

미 상공회의소 진입과정에서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던 학생들은 책상, 의자 등 사무실 집기로 문앞에 바리케이드를 친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학생 6-7명은 상공회의소 건물 진입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부시 방한을 반대하는 한총련 청년학생들 일동≫ 명의의 유인물을 통해 ≪한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평화를 위협하는 부시의 방한을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오늘 미국에 대해 한국민들의 강력한 분노와 엄중한 경고를 표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 상공회의소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 학생은 ≪한반도를 왜곡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수많은 문제, 즉 주한미군, 무기강매, 양민학살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시의 방한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주한 미 대사와의 면담이 성사되기 전에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후 1시 30분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 출입구 막고 진압작전

미 상공회의소를 점거중인 한총련 학생들은 45층의 왼쪽 유리창을 깨고 ≪전쟁책동 무기강매 부시방한반대한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창밖으로 성명서를 뿌리며 자신들의 주장을 밖에 알리고 있다. 한편, 경찰들은 건물 출구 2곳을 봉쇄하고, 진압 작전 초읽기에 돌입했다.

오후 3시30분경, 7명의 경찰 특공대원이 45층의 왼쪽 깨진 유리창으로 로프를 타고 들어오면서 경찰의 대대적인 진압작전이 개시됐다. 복도쪽에서는 바리케이드가 쳐진 문틈으로 폭음탄을 쏜 뒤 50여명의 경찰이 밀려들어왔다.

농성자들은 소방호스를 꺼내 물을 뿌리기도 했지만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고, 불과 10여분만에 경찰특공대에 의해 진압됐다.

이날 연행된 학생은 총 27명(남자 14명, 여자 13명)이다. 이 광경을 보도하기 위해 1백여명 이상의 기자들이 모여들어 취재 경쟁을 벌였다.

≪오마이뉴스≫는 유일하게 동영상팀을 파견해 농성장에 들어갔으며, 3시간여 동안의 농성 장면과 경찰특공대의 진압장면을 내보낼 예정이다.

우성/김시연 기자
오마이뉴스 2002/02/18

11면에서 이어집니다

를 들여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은 삼척동자도 웃을 억지 주장으로 지탄받을 것이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자주권 유린과 민중의 생존권 위협,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처리와 용산미군기지 문제 같은 산적한 한미간의 미해결 과제,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한미투자협정의 강요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마당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압력은 우리 겨레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부시대통령과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과 북의 자주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협력하는 것이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는 나라로서 역사적 · 도덕적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김대중정부는 전쟁반대에 대한 우리 겨레의 확고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하며, 남과 북의 정부당국자는 전쟁방지와 한반도평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보다 과감하게 기울여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의 의미와 그 심각성을 얼버무리려 하거나 ≪미국 정부의 햇볕정책 지지와 대북 대화 의지에 변화가 없다≫고 해명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여 현실에 눈멀게 하며 위기에 대처하는 의지와 능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북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도 국제적인 논의의 틀 안에서 어디까지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은 첫째, 한반도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전쟁이 있을 수 없다는 전쟁불가 선언을 해야 한다. 둘째, 민간단체와 함께 긴급히 전쟁방지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나라의 총력을 전쟁방지에 쏟도록 해야 한다. 셋째, 남과 북의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해 공동으로 한반도 전쟁반대와 평화선언을 해야 한다.

이북당국 역시 9 · 11 사건이후 전개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직시하면서 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겨레가 평화와 통일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 보다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한반도 문제는 우선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한다≫는 원칙에 따른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여야 정치지도자에게 정파적 이해와 정견을 넘어 온 겨레의 힘과 지혜와 의지를 모아내고,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키는 데 지도적 역할과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5. ≪전쟁반대, 평화정착!≫, ≪6 · 15공동선언 조속 이행, 평화통일 성취!≫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7천만 겨레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지난 1994년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에 의해 한반도가 전쟁 일보직전까지 다가갔던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고 충격과 함께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우리 국민 일부에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전쟁불감증≫은 하루 빨리 치유되어야 한다. ≪설마, 설마≫ 하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남과 북의 겨레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만에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온 겨레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부시대통령과 미국정부에게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 우리 겨레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역사적인 행보에 미국도 협력하라!≫는 결연한 자세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부시와 미국도 우리 겨레의 단결된 모습 앞에서는 어쩌지 못할 것이다.

우리 겨레가 살고 있는 소중한 이 땅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있을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냄으로써 세계평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겨레의 숭고한 역사행보와 굳건한 의지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막지 못할 것이다. 이제 부시대통령과 미국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평화 지향의 대한반도 정책 수립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부시대통령이 이번 방한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 겨레가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지 배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쟁반대, 평화정착!≫, ≪6 · 15공동선언 조속 이행, 평화통일 성취!≫의 기치 아래 7천만 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갈 것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인과 연대하여 강력한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온 겨레와 세계인류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2002년 2월 18일
≪700인 평화선언≫ 참가자 일동

부시의 대화 제스처에 속지 말라 (1)

김민웅 / 재미언론인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 사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부시정권의 본심이란 결국 남북간 자주적 협력과 결속이 진전되지 않는 것이다.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동북아시아 평화체제가 확고해져가게 되고 군사주의 노선에 기반을 둔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질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민족적 생존과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은 굳이 복잡한 분석을 요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족의 생명을 지켜내려면 ≪굴종인가, 저항인가≫ 하는 차원의 선택 이외의 것은 없다.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그 나마의 잠정적 타협의 지점을 만들어 내는 일은 우리의 강력한 저항과 확고한 결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미국의 지배세력은 투쟁하지 않는 상대에게 선의를 가지고 스스로 양보하는 법이 없다. 강자 앞에서의 굴종은 잠시의 안전을 도모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생존의 항상적 위기를 불러 올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끊임없이 피폐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

한반도 전체의 군사기지화 식민지화가 미국의 근본적 관심사

≪한반도 정세의 전개는 어쨌거나 미국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은, 오늘날 부시 정권과는 접근이 달랐다고 평가받는 전임 클린턴 정권 시기에도 변함없이 관철된 원칙이었다. 클린턴 정권 시기 가까스로 용인되었던 ≪햇볕정책≫이란 소위 한미 공조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배적 관할을 인정하는 선에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존립은 클린턴 정권 하에서도 불가능한 것이었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6.15 공동선언≫에 대한 당시 클린턴 정권의 싸늘했던 반응은 소위 한미 공조의 기본성격이 무엇이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자주선언은 곧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 공조는 한국이 미국의 위성 국가적 위치에 머물러 있는 한 보장되는 것이었다. 1994년 대북 공격을 실행하려 했던 클린턴 정권의 경우, 적대관계의 점진적 청산을 의미하게 될 대북 유화정책은 그 임기 말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기미를 보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고로,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의 배경과 의도에는 미사일 문제 해결이나 군사비 증액 명분 또는 엔론 스캔들 회피용, 중간선거 승리를 겨냥한 정치적 포석, 전쟁 국가 강화 등등의 요인들을 넘어서는, 제국주의 체제의 세계 전략적 차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미국의 지배전략은 지난 시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입의 통제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겠다는 점에서 적어도 그 본질상 달라진 것이 없다.

.....

그런데 부시 정권에 들어서서 우리에게 좀 다르게, 그리고 매우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는 그 지배전략의 중심이 ≪실현성 높은 전쟁정책≫으로 뚜렷하게 이동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전쟁 정책을 포기한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지만, 이처럼 노골적으로 전쟁의 방식을 공언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이는 ≪확전≫, ≪반 테러 전쟁≫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제국주의적 지배전략의 공격적, 침략적, 정복주의적 본질≫을 보다 분명하게 꿰뚫어 보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 민족 내부의 결속이 보다 강력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악의 축≫ 발언에 대한 국내의 반발을 의식하여 미국 부시 정권이 향후 외교적 수사(修辭)를 아무리 바꾸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쓴다해도 그것은 모두 실질적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빈말에 지나지 않을 뿐, 정작의 본심이 달라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수사적 변화가 전쟁정책의 추진의지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동시에 주목해야 한다. ≪대화지지≫, ≪포용정책지지≫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해도 적대적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꿀 의사는 여전히 표명하고 있지 않으며 도리어 고강도의 조건들을 계속 내걸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외교적 수사에 현혹되어서는 안돼

부시의 발언이 마치 군사무기 강매를 위한 정치적 포석이나 기타 대북 압박용 등으로 제한해서 이해하는 것은 그 문제만 풀리면 발언에 담긴 정책과 자세가 철회될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 한계와 위험이 있다. 그것은 가령 무기만 사주면, 또는 이북의 대미 자세가 좀 누그러지면 미국이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해줄 것이라고 여기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오산이다. 미국은 ≪남이나 북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종속과 굴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만족시키는 수준이란 종국적으로 항복 외에는 없다. 1994년 이북과 핵 문제로 제네바 협상의 실무를 담당했던 로버트 갈루치는 부시 정권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2002년 2월 14일자 뉴욕 타임즈지의 질문에, ≪부시정권은 언제 어디서든 이북과 대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부시 정권이 대화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북의 항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신랄하게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흡족해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놓고 사고하는 것은 민족의 자존과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뿐이다.

미국이 원하는 ≪북의 변화≫란 자발적이건 압박을 받아서건, 미국 앞에서의 무장해제와 제국주의 침략의 근거지를 ≪개방≫이라는 이름 아래 제공하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니다. 이러기 전까지 미국은 갖가지 이유와 구실을 붙여 남과 북을 계속 압박해 들어올 것이다. 미국이 핵 동결을 전제로 대체 에너지 공급을 약속한, 이북과의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면서도 아무런 자세 전환이 없는 것은 미국의 이러한 고압적 패권주의를 보여준다. 협정 준수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이미 충분한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는 이북의 핵문제 처리를 핵사찰 요구로 또다시 문제시하는 것은 이북을 어떻게든 자신의 손아귀에 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판명이 나고 있는 것이지만 미국은 애초부터 제네바 협정을 지킬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힘을 얻고 있던 ≪이북 붕괴론≫에 의지하여 시간을 벌면서 이북에 대한 점령정책 실현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뿐이다.

미국이 한반도 전략에 있어서 전쟁정책을 완전히 배제하고 ≪6.15 공동선언≫에 확언된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하겠다는 자세가 진실임이 입증되려면 실질적 내용은 담겨져 있지도 않은 ≪햇볕정책지지≫, ≪남북 화해 협력지지≫ 등의, 외교적 허사(虛辭)로 그칠 일이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남북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진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퇴각시키는 정책 실현이 무엇보다도 우선적 관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까지나 한반도의 운명을 미국이 관리, 지배, 결정할 것이며, 전쟁정책의 일상적 유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부시 정권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우리 민족의 생존이 좌우되는 현실적 기초인 미국의 군사력을 한반도 남쪽에서 정리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 정부당국의 외교적 수사를 그대로 신뢰하면서 잠자코 있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닌 것이다.

부시, ≪악의 축≫ 국가에 모든 대응 수단 검토

미일 정상회담, 일본경제 테러전쟁 등 논의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18일 오전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경제의 회생방안과 미국의 대테러전쟁 등에 관해 논의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동아시아 순방에 나선 부시대통령은 이날 첫 방문국인 일본에서의 정상회담에 앞서 고이즈미 총리에 대해 ≪위대한 개혁가로 일본을 이끌어갈 그의 능력에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해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또 이북 · 이라크 · 이란 등을 ≪악의 축≫으로 지칭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우방국들의 우려에 대해 ≪그(우방국) 우리의 입장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부시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 총리 관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북 등 ≪악의 축≫ 국가에 대해 ≪모든 선택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이 문제를 검토,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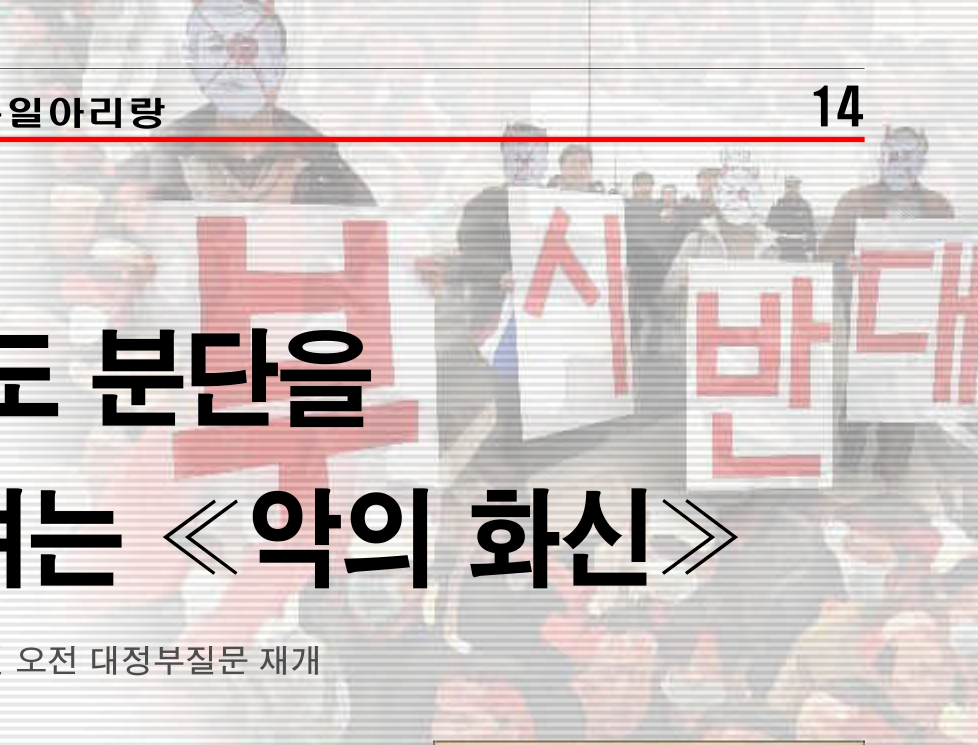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테러 문제에 긴밀히 협력, 대처하기로 합의했으며 대이북정책과 관련해서도 한 · 미 · 일 3국간의 기존 연대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참여를 환영하며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년째 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에 대해 부시대통령은 ≪일본 경제의 건강함을 전세계에 중요하다≫며 일본측의 보다 과감한 구조개혁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금융기관 부실 채권 처리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곤란이 있어도 단호히 추진하겠다≫며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한 결의를 표명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외무성 이쿠라 외무성 공관에서 오전 10시경 시작돼 1시간 45분 가량 계속됐으며 회담 시작 30분간은 양국 정상과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극소수만이 논의를 진행한 후 파월 국무장관, 베이커 주일 미 대사, 후쿠다 관방장관, 가와구치 외무장관 등이 추가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상회담에 앞서 부시대통령은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메이지천황을 모신 메이지신궁을 참배했으며 참배 후에는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일본의 기마 활쏘기 경기인 야부사메(流鏑馬)를 관람했다.

박인규기자
프레시안 2002/02/08



부시는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악의 화신≫

≪현장≫ 송석찬 발언 파문…19일 오전 대정부질문 재개

송석찬 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자로 나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이 총재의 아들과 부친의 과거 행적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자,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하는 등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날 송 의원이 이회창 총재의 장남인 정연 씨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거론하자, 이재오 · 김무성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여러 명이 단상으로 몰려나와 송 의원을 밀어내 발언이 중단되는 등 돌출 상황이 발생했다. 단상에서 발언중인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들에 의해 강제로 단상 밖으로 밀려난 것은 최근 몇 년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북을 ≪악의 축≫으로 몬 부시는 ≪악의 화신≫이다≫

질의에 나선 송 의원은 우선 ≪이북을 ≪악의 축≫으로 몰아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악의 화신≫(원고에는 부시대통령을 지칭)에 편승해 대권욕을 채우려는 이회창 총재의 ≪악의 뿌리≫를 제거할 의지가 있느냐≫며 이 총재를 강하게 비난했다.

송 의원은 이어 ≪병역 기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는 이회창 총재의 장남 정연 씨는 근화제약 장홍선 대표의 아들 장인우 씨 등 국내 재벌 2세들과 함께 대규모 주가조작을 공모했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정연 씨는) 아버지가 집권하면 뒤를 봐준다는 약속 아래 재벌2세들로부터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이회창 총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발언이 여기에 이르자, 이재오 총무를 비롯해 이규택 · 김무성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여러 명이 욕설을 하며 단상으로 달려나왔다. 이재오 총무는 국회의장에게 가서 항의했으나, 이만섭 국회의장은 ≪내려가라≫며 송 의원의 발언을 계속 진행시켰다.

결국 윤두환 · 이규택 의원 등이 송 의원의 발언록을 뺐어 흔들다가 바닥에 팽개치고, 몸으로 송 의원을 단상에서 밀어냈으며, 이재오 · 김무성 · 심재철 · 박종희 · 박창달 의원 등이 함께 송 의원을 몸으로 밀며 발언을 저지했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장에는 ≪그만해!≫, ≪좀 들어봐!≫, ≪순 빨갱이 아냐!≫, ≪송석찬! 뭐야!≫ 등의 심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송석찬 의원, 부시는 ≪악의 화신≫ 발언은 나의 소신

송석찬 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부시 미대통령을 ≪악의 화신≫이라고 표현한데 이어 자신의 소신이라고 입장을 굳힘에 따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악의 화신≫에 편승해 대권욕을 채우려는 이회창 총재의 ≪악의 뿌리≫를 제거할 의지가 있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송 의원이 배포한 원고에는 ≪악의 화신≫인 부시대통령의 계획에 편승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재오 한나라당 총무는 ≪집권당 국회의원이 부시대통령을 ≪악의 화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북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우방 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도 ≪송 의원이 이회창 총재의 남북관계에 대한 시국관과 방미때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적절하지 못한 수사적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시대통령이 ≪악의 화신≫이라는 것은 나의 소신≫이라며 ≪속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뜻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악의 화신≫ 발언은 본인소신인가.

≪소신이다. 그동안 부시대통령의 이북에 대한 ≪악의 축≫ 발언이나 불법집단 규정 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부시는 그런 입장을 취해 왔으며 이번 발언도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만약에 부시가 이북을 건드린다면 이북은 가만히 있겠는가. 이북이 공격할 곳이 어딘가. 남한에 미군이 있지 않은가. 이북도 생화학 무기며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도 무기가 있다. 둘이 붙으면 민족 자체가 공멸한다.≫

- 한나라당이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소신을 얘기한 것인데 삭제할 수 있나.≫

-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 부시가 방한하는데 외교적 문제가 있지 않나.

≪내일 방한할 사람이 ≪악의 축≫ 발언을 할 수 있나. (부시는) 그 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배알도 없나.≫

최경준/이병한기자
오마이뉴스 2002/02/18

새해맞이 행사 26-28일로 확정

≪행사 날짜를 2월 26일경으로 연기하자는 귀측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17일 저녁 ≪통일을염원하는2002새해맞이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새해맞이 준비위원회)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팩스문서를 보내왔다.

북측이 남측의 행사연기 요청을 공식 수락함으로써, 2월 19일부터 21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행사는 이번 달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팩스문서에서, 북측은 행사연기를 요청한 남측의 2월 9일자 팩스문서가 2월 13일에야 도착하는 등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측은 이번 행사와 관련, 22일에 금강산으로 출발하는 남측 선발대를 위한 조청장도 함께 보내와 ≪22일부터 금강산에서 미리 만나 행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남측 선발대는 조성우 새해맞이 준비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단장으로 해, 22일 금강산으로 갈 예정이다.

한편, 새해맞이 준비위원회는 내일(19일) 오전 10시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새해맞이 준비위원회는 이번 달 19일부터 21일까지 열기로 했던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행사를 부시대통령의 방한으로 인해 26일부터 28일까지로 연기한 만큼, ≪부시대통령의 방한을 맞는 민간통일단체의 입장이 부시미행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이번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행사가 성사되기까지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월 29일 - 2월 2일 : 남측 준비위원회는 북측과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실무대표회담에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금강산에서 남과 북의 대표 각 100명과 남측 참관인 250여명의 참가 아래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 2월 7일 : 종단 수장회의에서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행사기간과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 날짜가 겹침으로서 시기적으로 민감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 일주일 정도 연기할 것을 요청함.

△ 2월 9일 : 남측 준비위원회는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행사를 2월 26일에서 28일까지로 연기하자는 내용의 팩스를 북측에 보냄.

△ 2월 16일 : 남측 준비위원회는 2월 9일자 팩스 내용을 다시 북측에 보냄. 그 이유는 2월 9일자 팩스문서가 2월 13일에야 도착하는 등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 2월 17일 : 북측에서 남측의 행사연기 요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옴.

이계환기자
통일뉴스 2002/02/18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

대표집필자 최성원 /2001년 5월말 발표

1.우리는 왜 이 글을 긴급토론자료로 제출하는가

▶ 2.민족민주전선의 세계성과 역사성

▶ 3.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과 조직문제

4.반제자주역량의 미군 철거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5.민중적 민주역량의 국가보안법철폐 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6.민족민주전선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7.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정권의 관계문제

8.제안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자

2. 민족민주전선의 세계성과 역사성-2

.....

3개 대륙의 반제자주역량이 1970년대에 이르러 자기의 전선을 민족해방전선에서 민족민주전선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한 것은 반제투쟁과 더불어 제국주의세력이 자기의 하수인으로 등장시킨 예속정권을 반대 · 배격하는 투쟁에 나서야 했기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소비에트형 사회주의가 몰락했던 1990년대 초까지 반세기 동안 제국주의세력은 3개 대륙의 수 십억 민중에 대한 지배와 수탈을 자행하면서 자기를 반대 · 배격하는 반제자주역량을 탄압 · 말살하기 위하여 각 나라의 예속정권을 하수인으로 앞장세웠다. 그 예속정권들은 제국주의세력의 손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선발되고 육성된 파시스트세력이었으며 제국주의세력의 배후조종을 받는 반민족세력이었다. 쏘모사, 피노체트, 마르코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그 하수인들 가운데도 유달리 악명이 높았던 압제자들이다. 3개 대륙에서 제국주의세력의 손에 길들여진 예속정권들은 예외 없이 투옥, 고문, 학살을 자행하며 민족민주전선을 짓밟아보려고 날뛰었다.

민족민주전선이라는 깃발 아래 모여든 3개 대륙의 반제자주역량이 파시스트 예속정권의 모진 탄압에 맞서 자기를 지키며 헤쳐가야 했던 투쟁의 가시밭길. 그 혈전만리의 길에서 정확한 수는 헤아릴 길 없으나 수 백만 명의 이름 없는 영웅전사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감옥에서, 형장에서 목숨을 빼앗겼으며 밀림 속에, 도심지 길바닥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민족민주전선, 그 위대한 이름에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수탈, 그리고 예속정권의 피묻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해오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수 십억 민중이 흘린 순결한 피와 땀과 눈물이 스며있나니, 오늘 3개 대륙에 펄럭이고 있는 민족민주전선의 깃발 앞에서 우리는 옷깃을 여며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변혁세력들이 제국주의와 그 예속정권을 반대 · 배격하기 위하여 민족을 단위로 하는 반제자주역량(민족주체역량)을 반세기 동안 피땀 흘려 구축해온 전선운동의 총칭이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이르는 세계사의 숨막히는 격동기. 그 반역과 붕괴의 소용돌이 속에 소비에트형 사회주의가 휘말려들어 자기의 존재를 비극적으로 끝마치고 있을 때, 제국주의 광풍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구 전역을 강타하고 미증유의 혼란과 시련이 몰아쳤어도 3개 대륙의 민족민주전선은 깃발을 내리지 않았다. 아니 그 시련기를 헤쳐오면서 더욱 단련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지구 위에 제국주의의 지배와 수탈이 남아있는 한 사라질 수 없는 강인한 투쟁력과 생활력을 발휘하는 철의 존재임을 세계사에 뚜렷이 입증하였다.

이 땅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과 그 뒤를 이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이라는 이름의 전선운동조직이 건설된 때는 3개 대륙의 민족민주전선이 미증유의 혼란과 시련을 겪기 시작했던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였다. 이 청소한 전선운동조직들은 남측에서 전선운동의 기나긴 공백기를 접고 민족민주전선운동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그 동안 안팎에서 몰아닥친 여러 차례의 위기를 넘기며 전선운동의 대오를 지켜냈으며 올해로 10년의 연륜을 쌓았지만, 아직 남측 민중의 투쟁력 전체를 반제자주역량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 한계는 민족민주전선의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한시 바삐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사의 시제가 21세기로 바뀌어진 지금 제국주의의 지배와 수탈은 ≪세계화≫라는 교묘한 개념으로 포장되어 세계적 범위에서 매우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제국주의의 세계화 책동은 제국주의세력과 3개 대륙 민중의 모순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순이 심화되는 곳에서 그 모순을 극복하는 투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며 지금 3개 대륙의 민족민주전선은 자기의 투쟁력을 더욱 고양시키면서 사회역사변혁의 궤도 위에서 전진하고 있는 중이다.

제국주의가 지배와 수탈을 세계화하고 있는 오늘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역사의 진보와 변혁을 추진하고 있는 반제자주화의 흐름은 크게 두 갈래로 흐르고 있다. 한 흐름은 제국주의세력의 집요한 고립 · 압살책동으로부터 ≪주체형의 새로운 사회주의≫를 수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도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 재생운동이며, 다른 흐름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3개 대륙에서 투쟁하고 있는 민족민주전선운동이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그러한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세계성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재생운동을 이끌어 가는 영도국이며,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3개 대륙의 민족민주전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반제자주역량의 최전방이다. 인류사회의 진보와 변혁을 추진하고 있는 반제자주화의 두 흐름은, 놀랍게도 조선반도 안에서 이처럼 하나의 흐름으로 합류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반도는 제국주의세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전략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19세기말부터 제국주의의 지배와 수탈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아온 땅이다. 지금도 삼천리 강토와 7천만 민족은 제국주의의 분할 · 지배정책이 강요하고 있는 분단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지배와 수탈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아온 땅에서 제국주의를 반대 · 배격하는 반제자주화운동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보적 인류의 21세기 운명은 조선민족의 반제자주화운동에서 개척되고 있으며 조선민족은 반제자주화운동의 선봉에 선 위대한 자주민족으로 일어서고 있다. 21세기의 사회역사를 진보와 변혁으로 이끌어 가는 반제자주화운동의 거대한 흐름은 조선반도에서 발원하여 지구 전역으로 굽이쳐 흐르고 있으며 진보적 인류의 반제자주역량은 그 동력의 중심축을 동방의 자주민족에게서 발견하였다.

3. 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과 조직문제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강령은 자주 · 민주 · 통일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민족민주전선들은 자주강령과 민주강령을 자기의 2대 강령으로 삼고 있는 데 비해,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제3의 강령, 통일강령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단순히 첨가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다른 나라 민족민주전선과 달리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나라 민족민주전선에 비하여 더욱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의 길을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3대 강령을 상호연관성의 측면에서 풀이하면, 자주강령과 민주강령은 각각 통일강령과 뗄 수 없는 관계로 결합되어 있음이 밝혀진다. 이것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위업과 민주위업을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투쟁 속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말이며, 자주위업과 민주위업을 실현하지 못하면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할 수 없다는 말이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자주 · 민주 · 통일 3대 강령을 구현하려는 여러 사회운동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결합한 전선이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3대 강령을 구현하기 위한 전선이므로, 3대 강령을 따르지 않는 세력은 민족민주전선에 결합될 수 없다. 민족민주전선이 강령의 일치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공고한 조직적 결합력을 보장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동력은 남측에서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단결된 민중에게서 나온다. 정치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단결되지 못한 민중일반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동력을 제공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단결된 민중은 민족민주전선의 기치를 따라 전진하며 투쟁한다. 바로 이 투쟁력이 남측 사회의 진보와 변혁을 추동하는 주력이다.

민족민주전선의 기치 아래 단결하여 투쟁하는 민중의 요구와 이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

민족적 요구와 이익이고 다른 하나는 계급적 요구와 이익이다. 민족적 요구와 이익은 민족 전체의 요구와 이익인데, 지금 남측에서 민족 전체의 요구와 이익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하고 있는 사회집단은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단결된 민중이다. 그러므로 남측에서 민족적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는 주체로 존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단결된 민중이며, 민족민주전선은 그러한 민중의 민족적 요구와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게 된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은 민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민중의 민족적 요구와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것을 내포하되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민족민주전선이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데 이것은 자주강령을 위한 투쟁이며 동시에 민주강령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고 박탈하고 있는 주범은 외래 독점자본과 그것에게 끌려가고 있는 남측의 부르주아 정권과 독점자본이다. 민중 생존권 투쟁은 외래 독점자본의 경제침략을 반대하고 남측의 부르주아 정권과 독점자본의 계급적 지배와 수탈을 반대하는 투쟁이므로 민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투쟁이지만, 민족민주전선은 민중 생존권 쟁취투쟁에 앞장서되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과업을 자기의 강령으로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자주강령과 민주강령에 포함시켜 수행하게 된다. 이것이 ≪내포≫의 의미다.

민족민주전선이 전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도 마찬가지로 민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투쟁이 아니라, 민중의 민족적 요구와 이익을 반영한 투쟁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은 민주강령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며 동시에 통일강령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은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또는 민중적 민주주의라고도 부른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반민주 악법이므로 철폐되어야 하며, 또한 연방제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반통일 악법이므로 철폐되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의 민주강령은 일반 민주주의(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령이다.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일반 민주주의를 넘어선 민중적 민주주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아직 아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완전히 철폐되어 민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이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제도를 뜻하는 개념이다.)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뒤에도 민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근본적 변혁≫은 수행해야 할 새로운 과업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은 민중의 계급적 요구를 짓밟고 계급적 이익을 박탈하는 데 동원되는 악법이다. 그렇지만 민족민주전선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목표를 민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계급적 자주성을 완성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중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민족민주전선의 반제자주역량은 민족적 관점을 앞세우면서 자기 안에 계급적 관점을 내포해야 한다. 민족적 관점만 지니고 계급적 관점을 포기하면 우경적 편향에 빠지고, 그 반대가 되면 좌경적 편향에 빠진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을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민족자주성의 완전 실현과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연방제 통일 실현이다. 3대 강령 가운데서 자주강령과 민주강령은 남측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업으로 실현될 것이다. 남측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그것은 곧 민족자주위업이 실현되는 것이며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또한 자주적 민주정부는 북측 정부와 힘을 합쳐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는 주체의 한 쪽이기도 하다. 물론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도 연방제 통일은 낮은 단계에서 실현되겠지만, 자주적 민주정부는 연방제 통일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 완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의 전략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 실현이다. 민족민주전선의 당면정세 속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은 미군 철거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그리고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이 3대 과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역통일전선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설명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3개 대륙에서 전개되고 있는 민족민주전선조직의 조직화 수준과 방식은 민족민주전선조직이 존재하고 있는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파시스트적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나라의 경우, 민족민주전선은 비합법조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반합법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다. 남측에서 파시스트적 탄압이 자행되었던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남측 민족민주전선도 다른 나라에서처럼 비합법조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2001년에 들어선 오늘의 남측 사회는 지난 시기와 같은 파시스트적 탄압이 지속될 수 없는 정세로 일정하게 개변 · 완화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체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거나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 체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남측에서 민족민주전선은 합법조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합법조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사회역사의 진보와 변혁을 지향하는 운동력이 언제 어디서나 합법조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합법주의적 편향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국가보안법 체제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반합법조직으로 존재해야 한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반합법조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말은 그 조직이 합법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대중단체들을 통일전선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과 임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내일 계속됩니다)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7.4남북공동성명(2)

현대조선역사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은 남북협상방침은 세계 수많은 신문, 통신을 비롯한 출판물에 실려 세계적 범위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남북협상방침이 나온 다음 그 실현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압력이 강화되고 세계인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때까지 북과 남 사이의 그 어떠한 접촉도 완강히 거부하여오던 남조선정권은 하는 수 없이 대화의 마당에 끌려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은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에 의하여 북과 남 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이 마련되었으며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첫째로,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둘째로,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를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며 셋째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단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북과 남의 쌍방연락대표들의 예비적 접촉이 있은 다음 마련된 평양과 서울에서 있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북과 남의 관계를 개선하며 남북조절위원회 구성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보고 이를 확인하는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은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1972년 7월 4일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동시에 발표되었다.

남북회담과 남북공동성명은 새로운 한 세대가 자라도록 지속되어오던 남북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았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 염원과 이익에 전적으로 맞게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민족최대의 숙원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는 귀중한 밑천을 마련하여 놓았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오랫동안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고 민족화해의 분위기를 소생시키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각방으로 앞당겨 나갈 수 있게 실제적인 가능성을 지어놓았다.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국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남북공동성명을 열광적으로 지지하였다.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해외동포들도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을 합쳐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에 넘쳤다.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공정한 사회여론은 한결같이 남북공동성명을 열렬히 지지환영하면서 공동성명의 발표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한 조국의 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하였다.

남북공동성명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국가수반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회정치활동가, 언론인들 속에서도 광범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성원이 날을 따라 더욱더 커갔다.